



時計塔

SIGETOP



2020년 4월 20일

서울대학교醫科大學北美洲同窓會 發行

제47권 2호

P.O.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365-5500 Fax: (516) 365-5501

발행인: 李聖吉 편집위원: 金明源 徐亮 羅斗燮 徐仁錫
편집인: 徐倫錫 李善姬 徐貴淑 朴恩景

자문위원: 盧鎔冕 金炳哲 李熙景 許善行

snucmaa@yahoo.com

www.snucmaaus.org

바이러스의 늪과 소중所重한 의료인醫療人的 증언證言들

코비드(COVID)19 의학연구

COVID-19 환자 진료의 어려운 점

박계영 (90, 시카고)

신원석 (88, 버지니아)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 코비드-19(COVID-19)가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전 인류가 보건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적인 면에서 그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충격과 혼돈에 싸이면서 앞으로 다가올 불안감과 공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병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 사회적 손실만 해도 천문학적인 양인데,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어서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기존에 보고된 임상 양상과 호흡기/중환자실을 담당하는 한 의사로서 현장에서 지켜본 양상을 종합해보면, 대개 잠복기는 3-10일 정도인 것 같고, 초기 증상은 목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발열 등을 호소하는데 이는 환자에 따라서 한두가지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열을 중요한 질병 감시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나, 발열이 전혀 없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병이 진행하면서 가슴을 짓누르는 흉통, 두통, 설사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임상증상들은 환자에 따라서 매우 다릅니다.

독감(influenza)과 같은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과 비교되는 코비드19의 독특한 임상증상은 매우 높은 폐렴 소견입니다. 감염자의 80-90%가 병의 경과 중에 폐렴을 경험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이 병으로 인한 공포의 주원인입니다. 방사선 소견으로 보면 바이러스성 폐렴에서 보는 간유리 음영(ground glass opacity)을 보이는데, 일반적 흉부 방사선상에서는 자주 간과될 수 있으나, 흉부 CT 영상에서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렴의 중증도에 따라서 저산소증이 동반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개 병원의 입원기준은 폐렴과 저산소증의 중증도이며, 기존의 역학연구를 보면 감염자의 약 20%가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폐렴 소견을 보이는 것으로 되어있고 이 중에 약 30-50%가 중환자실 입원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대개 80% 환자는 자가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급속히 발생하는 호흡곤란이 종종 있어서 자주 산소 포화도 같은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물론, 심폐질환과 같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저산소증이 좀 더 심하게 오는 것 같습니다. 전체 감염자의 5-10%가 결국에는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대도시 병원 중환자실이 코비드19 환자로 채워지고 있어서 앞으로의 경과가 매우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중환자실에서 적절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은 경우 대부분이 쉽게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인공호흡기 치료가 대개는 1주 이상, 길게는 3주까지 걸리게 되고, 중환자실 병실이 코비드19 환자로 가득 차게 되면서, 추가로 늘어날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 많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각국의 사망률을 보시면 중환자실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정도로 발생률이 조절되는 나라 (한국, 독일)와 그렇지 못하고 급격한 발생률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을 수 없는 나라 (중국 우한, 이탈리아)에서 사망률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병의 치료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고 임상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나 불행하게도 현재로서는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코비드19는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비말감염(droplet)이 제일 중요한 전파기전이고, 접촉(contact)을 통한 감염도 접촉한 손을 통해 기도감염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기침을 통해 만들어진 비말(aerosolized droplet)이 공기 중에 어느 정도 포말 상태로 떠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감염된 환자가 증상이 발현되기 전에 무증상 잠복기 상태에서도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어서 사회적인 통제와 격리가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데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코비드19가 얼마나 더 확산될지, 또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과 인적 및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질환의 궁극적인 해결은 결국 효과적인 백신의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백신의 개발이 그리 쉽고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그때까지 우리 사회가 감내해야 할 고통은 매우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전 인류를 휩쓰는 코비드19를 보면서 의학 연구와 과학 개발이 우리 사회를 지키고 유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들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십 수년 전에 지금의 코비드19와 거의 유사한 SARS 유행이 있었을 때 좀 더 많은 과학 투자와 의학 연구로 치료제나 백신 연구가 이미 되었더라면 지금 일어나는 양상이 많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이미 너무 늦었고 이 현실을 다들 잘 헤쳐 나가서 건강한 사회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Division of Pulmonary, Critical Care, Sleep and Allergy,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리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은 이미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에 개원해서 일차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내과 의사로서 겪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4월 16일 현재 미국에서만 사망자 3만2천여명, 전 세계 13만 6천여명이다. 앞으로 미국에서만 적게는 10만에서 많으면 100만 명 이상 사망할 수 있다고 한다. 아파서 오는 환자를 제외하면 정기검진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원격진료를 원하는 사람은 있지만 평소에 비하면 하루에 보는 환자가 1/3에도 못 미친다. 효과적인 치료제가 나오거나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이 사태가 얼마나 오래갈지 알 수가 없다. 요즘 곤란한 경우가 자신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게 아닌지 검사를 받고 싶다는 경우인데 검사 장비가 부족해서 일반인은 검사받기가 어렵다. 우선 검사 대상은 입원환자나 의료진이고 나이가 많고 만성질환이 있으면서 열과 호흡곤란이 있는 사람이거나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 나이가 젊고 기저질환이 없으면 검사 의뢰를 해도 자가 격리를 하라하고 검사를 거절한다. 지금까지 의대를 졸업하고 30년 넘게 환자를 보아왔지만 지금처럼 검사도 못하고 치료도 못하면서 의사로서 무기력하게 느껴본 일이 없었다.

환자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고 의학적 검사와 다른 검사를 해서 확실한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 의사로서 나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데, 진료를 하는데도 환자를 봐야 하고 눈으로 보는 시진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고, 진단 방법이 있음에도 이용이 제한되어 있으며 더욱이 대중요법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 이를 어찌 한단 말인가.

지금으로선 최선의 방법이 <사회적 거리두기, 손 자주 씻기, 얼굴 안 만지기, 마스크 착용> 정도이니 21세기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믿기 어렵다.

미국에 와서 25년을 지내는 동안 여러 차례 금융위기를 지났지만 의료부문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번 사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르다. 이전 금융위기 때에는 내원 환자가 줄기는 했지만 문제가 달랐다. 이번에는 병원에 오는 자체를 꺼린다. 예약 리스트를 보면 처음 버지니아에 개원한 첫 달처럼 환자가 없다. 방문이 필요한 환자도 대부분 원격 진료를 원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살다간 바이러스 때문에 사업 망해서 다 죽게 생겼다면, 이래죽으나 저래죽으나 마찬가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현재 미국의 의료체계에서는 대량의 환자가 발생하면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도 있다. 어떻게 해서라도 환자 발생 속도를 늦춰서 의료시스템에 과부하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동안 시간을 벌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면서 효과적인 치료제와 백신이 만들어지길 기다려야 한다.

시간이 문제일 뿐 이번 사태도 결국은 해결이 되고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는 나와 주변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거리두기와 손 씻기>를 열심히 해서 바이러스가 퍼지는 걸 최소한으로 막아야 한다.

Vienna, Virginia, 신원석 내과 원장

전염병... 꿈이 아닌가?

강창욱 (61, 메릴랜드)



우리 또래 (61년 졸업)는 한국에서 전염병 경험을 많이 한 셈이다. 가장 흔했던 것이 호열자(콜레라)요, 육이오 전쟁이 있었을 때는 발진티푸스(typhusfever) 때문에 바깥에 다녀오면 하얀 DDT를 덮어쓰다시피해야 했다. 의대 본과 1학년 예방의학을 공부하면서 국제적 예방에 대한 것도 배웠다. 내가 전염병의 무서움을 알게 된 것은 커네티컷 주립 정신병원에서 연수를 할 때(1967-1968) 이었다. 3천 명가량의 입원 환자 중 반 이상이 만성 질환으로 평생을 거기서 살았으며 놀란 것은 그 대부분이 감염질환에 의한 정신질환이라는 것이다. 이십세기 초에 만연하여 수백만의 생명을 앗아갔던 소위 스페니스 풀루에 의한 뇌염의 후유증이었다. 다른 절반은 전염병으로 간주하지 않을지라도 전염병에 버금갈 정도로 감염성이 높은 매독 때문에 온 뇌질환이 그것이다. 그중 상당한 환자에게 망상이 있었다.

우리가 쉽게 막을 수 없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과 함께 오는 무서운 것이 있다. 전염병이 만연할 때 함께 오는 것은 불안이다. <다음면에 계속>



2020년 3월, 그리고 4월

서 랑(69, 대구)

Social Distancing

인적이 끊어진 이탈리아 거리는 쥐 죽은 듯 조용할 뿐, 배경음악이 없는 화면진행이 한동안 지속된다. 한 사람이 방에서 입을 꼭 다물고 창밖을 내다보는 장면이 이어진다. 2020년 3월 어느 주말, 방에서 창밖을 내다보는 대신 나는 티브이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본다.

전 세계에 창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독 이탈리아만을 집중적으로 강타하고 있다. 지구상 모든 국가중 이탈리아의 사망율이 최고치로 9.5퍼센트.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들 열 명중 거의 한 명이 죽는다는 통계가 섬뜩한 현실로 우리를 엄습한다. 중국은 일찌감치 질병이 발생한 원조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미국이 버럭버럭 소리치며 울부짖는 소리가 귓전을 때린다.

바이러스의 속주는 사람이다. 따라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경계하고 회피하려는 마음에서 사람을 멀리하려고 애를 쓴다. 마트에서 한 사람이 다가오면 저 사람이 무증상 보균자라면 어쩌나 하는 공포심을 슬쩍 감추면서 그의 안색을 살핀다.

'Social Distancing'이라는 단어를 접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라 한다. 사람이 사람을 가까이하지 말라는 메시지다. 최소 2미터 이상은 떨어져서 말도 크게 하고 싶지 않고 숨도 깊이 쉬고 싶지 않다.

'social'은 14세기에 라틴어와 중세 불어에서 '동반자, 함께 어울리는 사람'을 일컬었는데 그 전신인 전인도 유럽어에서는 누구 뒤를 따른다는 뜻이었다. 누군가 '나를 따르라'하면 겁에 질린 사람들이 묵묵히 그를 따르는 장면이다.

'social'에는 엄밀히 말해서 서로가 대등한 동료의식이 아니라, 지도자와 추종자의 뉘앙스가 깃들여진 개념이었고 지금도 사회주의(socialism)이라는 정치용어에 그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어원학적 차원에서 사회주의는 강한 지도자와 고분고분한 추종자를 요구한다.

'distance'는 원래 13세기에 고대 불어에서 '거역하다, 다투다'라는 반항심을 폭폭 풍기는 뜻이었다가 근 200년 후 14세기 말에 비로소 '거리'라는 현대적인 의미로 변했다.

'social distancing'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매우 모순적인 말이다. 무슨 말이 이런가. 고분고분한 거역? 지도자, 보호자의 뒤를 싫어도 억지로 따르는 이을 배반적인 군중의 정신상태?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 인간은 천성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라는 교훈을 곰곰이 생각한다. 기원전 4세기 저서 '정치학'에서 그는 연이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거나 충분히 자급자족할 수 있어서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짐승이거나 신이다." (본인 譯)

나는 이 발언을 한 지도자로의 선언이라기보다 개개인으로는 아주 미약한 인류가 서로 힘을 합쳐서 힘하고 힘든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어려움을 무마시켜 주는 그의 편안한 포용심으로 해석한다.

다닥다닥 늘어진 아파트 발코니에 악기를 들고 나와서 멀리서 서로를 바라보며 박자를 적적 맞추어 음악을 연주하는 이탈리아 사람들의 왕성한 열기가 화면을 덮는다. 그들은 연주가 끝난 후 눈살을 찌푸리며 입을 크게 벌리고 마음껏 웃음을 터뜨린다.

지금은 비록 당신과 내가 물리적 거리감을 두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천성이 느끼는 소외감이 있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힘을 모아 공동의 적 코로나 바이러스를 훌륭히 물리칠 것이다. 연약한 동물적 감성을 달래면서 오랜 세월동안 진화에 진화를 거듭해온 인류의 따스한 지성으로 서로를 보듬어줄 것이다.

워 리

2020년 4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뉴욕 의료인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 약사, 슈퍼마켓 종업원, 배달업자, 의사같은 직업은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직종이다. 차가 몇 대 안 보이는

유령 도시의 고속도로를 나 또한 매일 질주한다.

병동 직원들은 마스크를 쓰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환자들의 민낯이 편안해 보인다. 한 직원이 부럽다는 듯이 투덜댄다. "They are not anxious at all" - 저들은 도무지 걱정을 하지 않네요.

'anxiety(걱정, 두려움)', 'anguish(고민)', 'anger(분노)'처럼 '앵~'으로 시작되는 말은 전인도유럽어에서 좁고, 답답하고, 옥죄인다는 뜻이었다. 노여워서 토라진다는 뜻의 '앵돌아지다'라는 우리말도 '앵'자 돌림이라고 당신이 주장한다면 그 또한 백 번 맞는 말이다.

티브이에서 패닉 상태에 빠져 소리치는 뉴요커를 본다. 이들은 남들에게 마음 놓고 공포심을 분출하고 있다. 자기 말에 도취되어 남들과 자신의 무성증을

<전면에서 계속> 불안증이 있으면 남의 이야기를 듣고 그럴 듯하면 믿어버리는 약점이 있다. 그럴 듯한 말이란 믿기 쉽거나 믿고 싶은 말이다. 때로는 이것이 망상으로 남아 괴로움을 끼칠 경우가 있다. 전염병 못지않게 고의로 말을 퍼뜨려 전염병처럼 대학살을 한 역사도 있다. 로마의 네로(37-68AD)가 로마에 대화재를 일으키고 그 원인이 기독교인들이라고 말을 퍼뜨렸다. 1923년 관동대지진 때의 조선인 대학살을 하게 한 것도 일본인들의 악의로 퍼뜨린 말 때문이었다.

몇 년 전 한국에서 일어난 광우병 유포는 참으로 무서웠다. 정신과를 전공한 나에게는 소름이 끼쳤다. 이런 것이 망상(Delusion)이 될 경우 집단적 망상(Folie-a-tut)라고 한다. 이 증상의 대부분은 인위적이다. 이것이 만성이 되면 문제가 크다. 인종 증오범죄 같은 것의 원인이 이런 것에서 온다. 한편 15세기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소수의 정복자들이 아스텍 제국, 남미의 잉카 종족 등 수백만의 인명을 짧은 시간에 대학살 함으로서 그 대제국을 정복할 수 있었던 역사가 있다. 그것은 정복자들이 무의식적으로 함께 지니고 온 전염병 바이러스를 삽시간에 체질적으로 전혀 방어력이 없던 토착민에게 전염시킨 것이다. 전혀 뜻하지 않은 무기였던 셈이다. 그런 끔찍한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 영화 "The Mission"을 권한다. 불안이 심하거나 만성이 되지 않게 막으려고 약물이라도 써야 한다면 요즘은 전화나 비디오로 화상상담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단기 치료를 위해 부작용이 아주 적은 항불안제나 항우울제를 쓰면 비교적 쉽게 견딜 수 있을 것이다.

부채질하는 냄새를 물씬 풍기면서, 이토록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이 패닉의 매력이다.

'panic'은 목신(牧神)을 지칭하는 고대 희랍어 'Pan'에서 유래했다. 사람 얼굴에 염소의 뿔과 다리를 가진 흉측한 반인반수(半人半獸)의 목신! 햇살이 찻김 굿 하는 무당처럼 넘실넘실 춤을 추는 벌판에 홀로 선 목동을 상상해 보시라. 원시의 공포가 엄습하지 않는가?

걱정, 두려움이나 공포를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이다. 모르는 것이 약이지만, 무엇이든 알면 삶에 도움이 되는 것 또한 진리다. 아는 것이 힘이다.

식자우환(識字憂患)은 어떤가.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고 했다. 사실, 아는 것은 슬픔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Don't worry!" 하며 직원들에게 힘주어 말한다.

'worry'는 13세기 고대영어로 다른 동물의 목을 물고 흔들어 죽이거나 해치는 (개나 늑대가 그렇듯이) 행동을 뜻했다. 14세기에 남을 괴롭히고 짜증나게 한다는 의미로 바뀌었고, 19세기 중엽에 혼자서 하는 근심이나 걱정이라는 뜻으로 변했다.

'worry'가 타동사에서 자동사로 바뀌는데 600년이나 걸렸다. 타동사는 동물적이고 자동사는 인간적이다. 아니지, 아직도 당신과 내 마음에는 자신의 근심 걱정이 남 때문이라는 생각의 그림자가 어른대고 있지.

어릴 적 할머니가 강아지를 "워리~" 하며 부르시던 기억이 난다. 강아지를 해피, 메리라 부르기 전 시절에 우리 선조들이 자주 쓰던 개 이름이 워리였다. 어원학자 송근원 교수에 의하면 오천 년 전 수메르에서 개를 '우르(ur)'라 불렀는데 우리 선조들이 개를 '워리'라 한 것과 발음이 비슷하고 '워리'의 '리'는 이리(狼)의 '리'와 같다. (2019)

"Don't worry!" 하며 나는 늑대처럼 공격적으로 말한다. 가슴이 답답할 때 당신은 차분한 심호흡으로 기도(氣道)를 여유롭게 넓혀 줄 것이다.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 전주곡의 나른한 멜로디를 들으면서 공포심을 무마하는 것도 좋다. 'panic'은 신화에 불과하다. 그리고 '워리'는 성질 고분고분한 강아지 이름이라는 것을 잊지 말도록. 걱정도 강아지 다투듯이 해야 한다.

이런 내 애정 어린 잔소리는 마스크를 써서 무증상 보균자의 전염성을 막아내고 멀리하고 몸의 면역을 높이는 식단과 생활습관을 잘 유지하는 당신의 세심함을 전제로 한다.

낮선 봄

서운석(68, 버지니아)

새 생명生命이 돌아오고
따뜻한 바람이 부는 계절에
신神은 낮선 봄을 보냈다

방문객을 맞던 벚꽃 도시
텅 빈 거리에는
열차도 안 다니고
자동차 행렬도 안 보인다

전쟁戰爭의 악몽惡夢이 되살아난 듯
땅 위에 떨어진
눈물에 젖은 꽃잎들
고아孤兒가 되어 울고 있구나

통성기도祈禱에 의지하는
아픈 아이들에게
신神은 시선視線도 주지 않고

생사生死가 달린
세균細菌으로 오염된
무섭고 힘든 봄을 보냈다

농담 골목

어느 중매인의 전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가정방문의 길이 막히자 어느 중매인과 예비 신랑과의 전화 내용입니다.

중매인: 저, 예비 신부께서는 대학은 못 나왔지만 아파트 한 채와 그리고 고급 승용차도 갖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예비 신랑 되시는 분의 학력과 재력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예비 신랑: 아, 네. 저는 00대학 경제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은 마스크 10 상자뿐입니다.

어느 후배 부인의 전화

며칠 전 유머에 능숙한 후배 부인의 전화를 받았다. 후배 부인: 이 선생님,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저도 영감과 함께 '창살 없는 감옥'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하루 세끼 꼬박꼬박 밥만 먹고 트로트 가락에 빠져 뒹굴고 있어서 그러지 저도 '확찐자' (살이 확 찐 자)로 관점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나의 조언: 아, 그러세요. 요즘은 '살천지' (온 몸의 군살)로 인해 확찐자도 늘어나고 있어요. 해결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흰색의 고무신(백신)을 구입해서 신고 매일 동네를 한 바퀴 돌기만 하면 됩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친구 e-mail

요즘은 신종 코로나 사태로 가슴에 분노가 들끓어서 그런지? 방귀가 뽕뽕 잘 나온다. 손 씻을 때면 풍당 풍당 노래 (30초 간 손 씻기 위해 권장하는 노래) 부르고 번기에 앉으면 트로트 흥얼거리며 잘 지나고 있다. 참고로 풍당 풍당 노래 가사를 보내 드립니다. 30초 간 손을 씻을 때마다 어린아이로 되돌아간 기분을 만끽하세요!

풍당 풍당 노래 가사
풍당 풍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넷물아 퍼져라 널리널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나물을 씻는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질어 주어라 - 이덕승(60)

나의 건강법칙

나 두 섭 (73, 남가주)

요즈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로 정보가 넘쳐나게 나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자 한다.

노년에 행복하려면 돈, 건강, 친구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나는 여기에서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어떤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었는데 건강문제만큼 그 말이 사실인 경우도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열하는 것은 참조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하려면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해야 한다.

몸의 건강 요소는 음식, 운동, 그리고 휴식이라 하겠다. 타고난 신체조건이 다르므로 각자에게 맞는 음식도 다르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섭취하는 것으로 구성되니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 몸이 달라질 수 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을 몸이 잘 이용하도록 필요한 양을 고루 섭취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 것인가는 각자의 신체조건 그리고 취향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과거에 먹었던 어떤 음식들이 섭취하였을 때마다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 음식은 피해야 한다. 자기의 신념을 남에게 강권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 채식이 좋다고 신봉하는 사람이 그런 음식이 입에 당기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권장하는 것은 바람직하게 생각되지 않는다. 영양소는 자기의 필요에 맞추어 적당한 양을 섭취하여야 할 것이다. 당뇨병이 있다면 알맞은 양을 여러 번에 나누어서 섭취해야 할 것이고 한 번에 많은 양을 하루에 한두 번 취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다. 육체를 많이 쓰는 직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게 먹을 것을 권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체내의 독소를 배출하는 방법이 많으므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합리적이다. 하루에 반드시 8컵을 마셔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양을

마셔야 할 것이다. 그리고 눈을 밝은 빛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귀를 큰 소음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치아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동차를 보관만 하고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은 움직여 주어야 한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몸의 각 기관은 사용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운동을 하여야 한다. 우리가 만약 어떤 이유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면 몸 상태는 급속도로 쇠약하게 된다. 갑자기 고관절을 다쳐서 거동을 못하게 되었을 때 온몸이 단시일 내에 위축되는 것은 좋은 예이다. 심장마비의 가장 큰 요인이 비만 보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보면 운동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 운동은 3종류를 하여야 한다. 걷는 것, 에어로빅 같은 유산소운동, 푸시업, 스쿼트, 아령체조 같이 근력을 강화하는 근육운동, 그리고 발끝으로 서기, 한발로 서기 같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균형운동이다. 운동은 매일 하는 것이 심하게 일주일에 몇 번 하는 것보다 좋으리라 생각된다. 운동은 무리하게 해서 안 된다. 모든 운동은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사고는 순식간에 예고 없이 일어나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연륜으로 비추어 볼 때 많은 경우에 예측할 수 있고 그러므로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신체적 기능과 판단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일이다. 그러나 시간이 있어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일을 했으니 쉬기도 하여야 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마음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가장 좋은 휴식 방법은 수면이다. 성인의 삼분의 일 정도는 수면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너무 오래 잘 필요도 없고 하루에 7-8 시간이 적합하다고 한다. 노년에는 시간도 많으니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기분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여행을 떠났다면 집에 있던 것은 잊어버려라. 집안 걱정을 가지고 다닌다면 여행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잠시 만이라도 새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접하며 그들의 세계에 참여해 보자. 가까운 곳으로 가는 것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 여행 경비를 생각해서 그 돈이면 하는 식으로 생



회장 보고

48대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장 이성길(71)

존경하는 여러분, 어느 시인이 말했습니다. “친구는 찾는 것이 아니라네. 모든 어려움을 함께 하고, 죽을만큼 힘들어도 옆에 같이 있는 사람이 친구라네.” 라고.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같이 보내는 우리 동창들은 진정한 친구이고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호하고 건강을 걱정하시느라고 바쁘시죠? 우리는 아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안전은 항상 저와 48회기 동창회 임원들의 염려와 걱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 얼마간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니 항상 조심하시고, CDC 지침을 잘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립니다.

2020년 4월 2-5일 제37회 컨벤션에서 수상할 것으로 예정되었던 수상자가 다음과 같이 확정되어 발표합니다.

1. 제6회 함춘미주공로상: 강수상(53) 허선행(64), 전희택(64)
2. 두산연강기금상: 송경민(2009)
3. 제3회 서울의대 학장상: 채영광(2002)
4.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 공로상: 이선희(81)

이분들의 시상식은 현 코로나 사태가 호전되어 가능하다면 6월 말에 대의원회에서 할 예정입니다. 여의치 못하면 2020년에 있을 다른 대의원회에서 해도 되겠습니다. 전 회기에 수고를 하신 정균희, 최광희, 주광국 님들께 감사패도 드릴 예정이나 사정상 참석치 못하시는 분에게는 소포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동창회 By-Law와 차기회장 안우성 님의 의견에 따라, 인수인계는 2020년 6월 30일에 하겠습니다.

우리 동문님들 중에 한 분도 감염된 분이 없도록 계속 잘 조심하셔서 무난히 지내시기를 기도합니다. 동문들의 건강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 손자들의 건강은 이런 때 더 중요합니다.

선배님, 후배님, 다음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각하면 여행 가기가 어렵다. 여행은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경비가 덜 아깝게 느껴질 것이다.

건강에서 마음을 제외할 수는 없다. 몸과 마음은 서로를 지배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마음의 관리가 몸의 관리보다 더 어렵게 생각되는 수도 있다. 어떡하면 즐겁고 편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즐거웠던 경험은 간직하고 불쾌했던 것은 마음에 없애는 훈련이 필요하다. 어찌다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받아들이고 추억으로 돌리자. 마음을 즐겁게 하는 다른 한 방법은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일 것이다. 혼자서 과거에 사로잡혀 있느니 누구와 만나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세로토닌이 나와 행복감도 느끼게 되고 자기의 문제가 나만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특히 같이 모여 노래를 배우는 것이나 골프를 같이 치는 것 같은 취미를

같이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몸과 마음을 함께 단련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또 나이를 먹을수록 해결해야 할 것은 변화에 대한 적응이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없어질 수도 있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을 수 있다. 쉽게 하던 것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한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그리고 한 번에 한 가지씩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족, 친구, 공동체와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 행복에 중요하다고 한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도와준다 하더라도 자기의 건강을 궁극적으로 지켜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노년이 되면서 변화하는 것을 미리 예측해서 대비하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장수할 수 있다면 자기에게도 주위 사람들도 계도 축복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편집위원이 만난 동문

1. 미국에 언제 어떤 계기로 오셨나요? 수중에 얼마의 돈을 가지고 오셨나요?
2. 배우자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가장 행복했던 때는?

3. 왜 의사가 되셨나요?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제일 중요한 의사의 조건은?
4. 관심이 있는 그동안 하셨던 연구분야, 하셨던 임상 전문분야는?
5.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힘 들었던 때는?
6. 의대 학창시절 추억 중에서 생각나는 이야기 한 두개만 소개해 주세요.

7. 다시 태어나신다면 또 의사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야에 일을 하시겠습니까?
8. 자녀 분들을 가르치실 때 얻은 경험중 후배들에게 참고가 되는 이야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9. 특별한 취미 생활, 현재 건강을 위하여 하시는 비법, 운동이나 생활을 소개하여 주세요.
10.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나 시계탑 신문 발행에 조언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하여 주세요.

이수인 (63) 선배님

1. \$100! 솔직히 원대한 포부를 갖고 왔던가? 아니다. 조류를 타고 군중에 휩싸여 미국에 온 것입니다. 향수의 감정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 지닌 채 다이애스포라! 나는 아직 이방인이 로소이다.
2. Mayo Clinic에서 마취를 수련 중이던 고운 여인을 형의 집을 방문하면서 만났지요. A massive thank. 형은 EEG fellowship을 하고 있었고 친구 박태진과 김현학, 이형근이 같은 시기에 Mayo에 있어서 응원 match maker로 도움이 됐습니다.
3. 나보다 여섯 살이 많은 형은 어릴 때부터 나의 영웅이었지요. 세브란스에 신경과를 신설하고 버지니아 대학교수로 있던 형은 알게 모르게 나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그의 아들이 뉴욕에서 신경과를 개업

하고 있어서 우리는 신경과 삼촌사.
4. 문학이나 철학과 더 접촉이 있을 거란 막연한 기대 때문에 정신과를 하던 중에 클리블랜드 Dr. 빅터 부부의 신경과 명강의 씨리즈를 듣고 신경과로 바꿨지요.
5. “정”입니다. 동아리 정신.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끼리 모으면 서로 도와 일을 더 쉽게 할 수 있고 서로 그리워하고 아끼게 됩니다. 이런 동아리 정신이 없으면 알 친구가 되기 어렵습니다. 까뮈가 말한 solidarite와 일맥 상통하는 얘기겠지요. 보람된 경험은 사회참여에서 오는 기쁨이었지요. 동기 김인원과 같이 시카고에서 한미 장학재단을 이끈 것은 잊을 수 없는 메모리이지요.
6. 가난뱅이 의대생에겐 길고 느린 칠 년이었는데 두 가지 사건이 있었지요. 하나는 제주도 무의촌 진료를 문리대생들과 갔었고 오는 길에 친구

한만희와 같이 무전여행을 한 것입니다. 그때는 서귀포에 다방이 하나밖에 없었고 예쁜 레지가 있었지요. 또 하나는 흰 까운을 입고 4.19 반정부 데모에 가담해서 경무대 앞까지 간 것이지요. 우남이 하야하고 그 바람에 나에게 배정됐던 우남 장학금이 연기 같이 날아간 것입니다.
7. 신경과 의사직은 내게 무난한 직업이었지요. 내가 달변이었으면 성직자나 정치가나 사기꾼이 될 텐데. 창의적이면 작가나 발명가가 될 텐데. 엔지니어링 두뇌는 없고.
8. Assertive 하고 caring 하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적을 것이라고 얘기하지요. 후회는 지옥일진대. 그리움의 대상이 되라.
9. 견고 또 견지요.
우린 항상 성취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은퇴인이 아닌 정상인으로 살고 싶어서 시간을 짜서 언어와 종교철학

을 독서합니다. 아마존의 Kindle App을 통해서 여러 나라 당대의 서적과 고전들을 싸고 쉽게 접촉할 수 있어 독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시카고 리릭 오페라에서 발간한 훌륭한 오페라 해설집을 다시 읽으면서 오페라들을 하나하나 다시 들여봅니다. 이십사년의 오페라 감상을, 시카고의 눈길을 걸어가던 밤들을 반추합니다.
전방부대의 의무참모가 형의 세브란스 동기였고 놀기 좋아해서 같이 많이 나돌았고 그통에 담배를 배워서 꼴초가 됐었죠. 폐에 bulla가 생길 정도로. 그 덕에 진시황이 죽은 나이 오십 살에 descending artery가 딱 막혀서 stent을 넣고 덤으로 산 삼십여 년!
10. 편집자의 의도가 아닌 저자의 의도를 살려 주기 바랍니다.
시계탑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배이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실어준 글들이 없기 바랍니다.



한효숙 (99) 동문

“가스파릴라(Gasparilla)”라는 축제를 아시나요? 맹추위가 한참이던 올해 초 학회 참석차 Tampa, FL를 방문했다가 진풍경을 보았습니다. 학회장, 호텔, 바로 앞 부둣가 할 것 없이 수백명의 해적들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바다 위에는 해적선이 떠있고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기술로 구현한 해적들이 현실에 나타나는 드라마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을 한참 시청하던 때라 더욱 어리둥절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해적 분장을 하고 거리를 행진하며 신화적인 인물인 Jose Gaspar라는 해적의 플로리다를 침공을 기념하는 이 행사는, 알고 보니 1904년부터 매년 1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열려 온 유명한 축제였습니다. 평균 30만명이나 모인다는 집계는 있는 걸 보니, 제 비행기 옆자리 승객이 가스파릴라에 참여하기 위해 탬파에 간다던 말은 우연이 아니었네요. 회고 고운 모래로 유명한 Clearwater beach 외에도 이런 매력이 있는 탬파로 한효숙 동문(99졸, 유방암내과)을 만나러 가보시겠습니다.



1. 미국엔 언제 어떤 계기로 오셨나요?
2000년도에 모교병원에서 인턴을 하던 중, 암 관련 연구가 향후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미국으로 떠날 결심을 하였습니다.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언어였어요. 문법이야 훤히지만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데에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영어로 된 책을 많이 읽고, 자막을 켜놓고 텔레비전을 보며 듣기와 말하기를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런 노력이 통했는지 레지던시 인터뷰 때 비교적 무난하게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당시 우리 학교 졸업생 중 미국으로 오는 사람이 많지 않

았기 때문에 정보도 많지 않았고 과연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합격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것부터 프로그램 매칭까지 지원 과정이 정말 길었던 기억이 납니다.

2. 병원에서의 하루 일과는 어떠한가요?
아울러 Moffitt Cancer Center는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Moffitt cancer center는 Tampa, FL에 위치한 포괄적 암센터(comprehensive cancer center)로, 암 예방 및 진료, 연구 등을 수행하는 전국 8위권의 암 전문병원입니다. 각 과가 내과, 외과 등 전공별이 아닌 유방암과, 대장암과 이런 식으로 질병군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저는 유방암과 소속인데, 저희 과에는 유방외과와 종양내과 전문의들이 함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암 환자들에게 효율적인 다학제간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지요. 저는 일주일에 이를 환자를 보고, 나머지 사흘은 연구에 전념합니다. 유방암 분야 연구책임자로 있으면서 여러 개의 임상시험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연구대상은 유방암 1기부터 4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이 중 일부는 제가 직접 계획하고 주도하는 연구들로, 연구 결과가 바로 임상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인종별로 항암치료 부작용에 차이가 나는지, 차이가 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등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많습니다.

3. 암전문의로 산다는 것은요?
종양내과는 방대하고 어려우면서도 가장 보람된 전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문적인 호기심도 있었지만 환자와 맺게 되는 특별한 의사-환자 관계에서 느끼는 보람이 이 전공을 택하게 된 이유였어요. 암 진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치료에 이르기까지 긴 여정을 함께 하는 거잖아요. 진료를 하며 해당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는데요, 누군가가 인생의 고비를 겪고 있을 때 도울 수 있으니 그보다 더 보람된 일이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료를 하다가 혹은 집에서 환자 생각이 나서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특히 젊은 엄마인데 유방암으로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래서인지 식구들과 서로 자주 안아주고, 뽀뽀도 많이 해주고, 일상에 감사하며 지내려고 노력합니다. 종양내과 환자들을 접하다 보니 일과 삶의 균형, 소위 ‘워라밸’에 더욱 신경쓰게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일만 하다가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4. 가족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세요?
아이들 교육에서 가장 중점을 두시는 부분은?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느끼는 장단점이 있다면요?

저는 아이가 들인데 초등학교 3, 4학년 연년생이에요. 애들이 시간 분

배를 잘 해서 학교 공부와 그 외의 것들을 알아서 척척 해내는 것이 사랑스럽고 대견합니다.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장점이라면, 저와는 달리 완벽하게 영어를 구사한다는 것!! 그게 참 부럽지요. 하하하. 여기 교육이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독서를 권장하고, 구조적인 글쓰기를 강조한다는 것이예요. 책읽기는 사고력의 밑바탕이 되니까요. 미국에서 사는 것이 행복한만큼 한국이 무척 그리웁습니다.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이 모두 한국에 있는데, 그 동안 자주 가보지를 못했거든요. 남편이 레바논인이어서 한국과 레바논 양쪽을 방문하려면 아무래도 그렇지요. 아이들이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해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도 편하게 대화할 수 있고, 또 확고한 문화적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면 더이상 바랄 것이 없겠는데. 엄마 아빠가 집에서 쓰는 말만 잘 따라해도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프랑스어 등 벌써 다섯 가지 언어를 할 수 있을텐데, 애들은 그저 자랑스럽게 영어만 쓰네요!

5. 미국생활에서 힘들었던 때는? 요즘 가장 즐거운 시간은 언제인가요? 바쁜 중에 체력 및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플로리다 썸 아래에서 피부/머릿결을 지킬 수 있는 비법이 있다면 귀뜸해주세요.

레지던트 때 바쁘게다가 당직도 많아서 힘들데, 가족이나 친구 없이 타국에 혼자 덩그러니 있으려니 고달팠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가장 행복한 시간은 가족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요즘 COVID-19 사태로 인하여 가족들과 친밀한 시간을 더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행을 즐기는데, 어서 이 사태가 잘 마무리되고 가족들과 여행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음, 건강유지를 위해서는 orange theory workout, 동네 헬스클럽, 자전거, 달리기, P90X exercise 등 늘 색다른 시도를 하는데, 무엇이든 꾸준히 하기가 어렵네요. 그래도 저에게 맞는 운동법을 찾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어요. 피부관리 비법은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네요. 제가 피부 관리를 위해 꾸준히 하는 건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것이 전부예요.

6. Cleveland, OH와 Miami, FL에서 수련을 받으시고, Tampa, FL에 정착하셨는데, Tampa의 매력을 알려주신다면요?

Tampa bay는 플로리다에서도 정말 괜찮은 도시입니다. 동네가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살기 좋고, 아름다운 해변이 가까이 즐비하고, 날씨도 정말 좋아요! 물론 참을 수 없이 무더운 여름날과 허리케인 시즌을 제외하고는 말이지요. 날씨의 영향인지 여기 사람들은 대개 느긋하고 성품이 온화해요. 인종-문화 구성은 라틴계와 아시아계를 포함해 다양합니다. 한국 식당도 몇 군데 있어요. 저는 2005년부터 플

로리다에 살았는데, 여기 사람이 다 되어가고 있죠.

7. 병원 홈페이지를 보니 First name 을 Heather로 쓰시는데, 어떻게 정하셨나요? Hyosuk 혹은 Hyo도 간혹 사용하시나요? 이름 외에도 미국에 온 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미국 친구들이 제 이름 ‘효숙’ 또는 ‘효’를 발음하기 하도 어려워해서 영어 이름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이왕이면 한국어 이니셜에 맞추어 H로 시작하는 이름을 모두 뒤졌는데, 예쁜 꽃 이름인 ‘Heather’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고보니 이름도 바뀌었고 성격도 달라졌네요. 예전에는 조용한 편이었는데, 미국에 살자니 외향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친구도 사귀고 해야 하니 알게 모르게 조금씩 달라진 것이, 나름의 생존법이 아니었나 싶어요.

8. 한국 방송은 즐겨 보시나요?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는 어떻게 연락하며 지내시는지요?

딱히 한국 방송을 볼 수 있는 앱을 깔거나 어디에 회원가입을 하지는 않았어요. 얼마 전에 아마존 프라임에 가입했더니 한국 영화가 몇 개 있어서 보기는 했어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과 연락하기에는 ‘카카오톡’이 최고지요. 가족, 친구들과 화상 채팅을 쉽게 할 수 있어서요. 출퇴근하면서 거의 매일 통화합니다. 요즘 COVID-19 사태를 겪으며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재정립중이에요.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 참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소중한다는 생각이 부쩍 듭니다.

9. 미국 내 여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있다면요?

2020년 새해 연휴에 의대 동기인 도은(99졸, 내분비내과, California; 2018년 4월호 인터뷰 참고)이네 가족과 Lake Tahoe 스키장에 갔었는데, 정말 좋았어요. 또, 여행 가본 곳 중에 Costa Rica가 무척 기억에 남네요. 그곳 사람들은 모든 질문에 “Pura Vida”라고 대답하는데, “Live life to the fullest!” 라는 뜻이에요. 멋지지 않나요? Costa Rica 여행 후 이 말은 제 삶의 명제가 되었어요.

10. 끝으로 미국에서 수련 받기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Pura Vida!” 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미국은 정말 기회의 땅이에요. 기회가 여러분 앞에 있으니 용기를 내어 잡으십시오. 미국에서 사는 것은 과연 어떤지, 암 진료와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이 궁금한 분들은 동창회를 통해 연락주세요. 요즘은 정보가 풍부하겠지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쁘겠습니다.

(박은경)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땅에서 피워내는 우리 동문들의 향기에 늘 감탄합니다.

시계탑 4월호가 도착할 때 여러분들께서는 시계탑 문집 제6집을 함께 받으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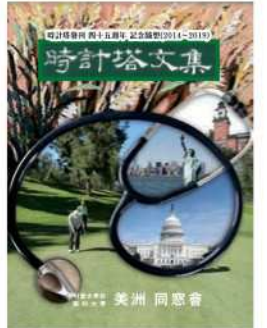
COVID-19 위험 속에서 이렇게 부끄럽지 않은 책자가 만들어진 것은 기적과 같습니다.

미국에서 편집하여 인쇄는 한국(아마도 경기도 파주)에서 했습니다. 선편으로 뉴욕에 몇 주일 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전 미국과 뉴욕 도시가 봉쇄된 때인지라 모든 분들의 안전을 생각하여 거의 한 달이 지나서 발송해 드리리는 것입니다.

동문(53명)들의 물심양면(모금액이 훨씬 초과 달성했음)의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번 문집에는 지난 5년간 동창회 행사와 관련된 천연색 사진을 넣었습니다. 동창들을 상징하는 갈대 그림과 청진기가 들어간 표지는 노영일(68) 화가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글씨체는 30년의 전통을 이어온 정균희(47대 회장)님의 필체입니다. 특별 기고로 정재욱(고 송관호 부인) 수필가, 김영애(김성환 42대 회장 부인) 수필가의 글을 실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동창회를 위하여 많이 공헌하시는 분들입니다. 지난 9월 말 편집회의 결정 후 날짜에 어긋나지 않게 문집 발행의 임무를 완수한 뉴욕의 황창근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집은 의학, 문학, 철학, 역사, 미술, 음악, 종교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

시계탑 4월호와 문집 6집을 발행하면서



기서 발견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한편 4월호 편집회 초록을 정리하면서 함께 모이는 것이 불가하여 이번에는 원고정리를 우선 본인과 황사장, 서귀숙 편집위원(교정)이 진행했습니다. 가편집이 되어 그 초안이 전 편집위원들에게 보내져서 파일을 검토하도록 부탁드렸습니다. 4월 20일까지 편집위원들의 모든 의견을 정리하여 최종 결론을 본인이 내려 인쇄소로 보내졌습니다. 이제 인쇄와 우송이 가능하여 4월호가 예정대로 여러분들께 잘 도착하기를 희망합니다.

요즘은 서울에서는 책이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번 사태로 독서량이 많아져서 그런가 봅니다. 우리 편집위원님들은 집에 갇혀서 계시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했으며 처음 두 면에 코로나 특집을 구상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루속히 부족한 점이 많은 우리 인류가 질병과의 전쟁에 승리하여 그 위협도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정되는 학술 대회와 동창회 모임, 여러 지부와 동기들의 행사에서 전과 같은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편집장 서윤석(68)

동문들이 남기는 귀중한 발자취입니다. 독자들이 읽고 깊이 생각하면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혜를 여

박종식(52) 선배님 타계

향년 만 91세이신 박종식 선배님은 지난 3월 18일 자택에서 소천하셨습니다. 1952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군의관으로 종군, 휴전 후 군 복무를 끝내고 도미하여 미국 동부에서 정형외과 수련과정을 마치고 Lima, Ohio에서 Dr. McBride 그룹에 합류하여 인술을 베푸셨습니다. 60년 전 동양인이 없었고 아주 보수적인 이 공업도시에서 선배님은 새로 정착하는 후배들에게 리더가 되고 또 가난하고 배고픈 이민자들을 위해서도 기독교 사상에 바탕을 두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늘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직 기력이 왕성한 1990년대 초 은퇴 후 Laguna Niguel, California에 사시면서 지난 30년간 중국, 한국에서 기독교 선교사업에 기여하셨습니다. 성경에 바탕을 둔 경제적인 면의 올바른 기독교인의 생활을 알리기 위하여 크게 활동하시고 Southern California 미국 Rick Warren 선교와 한국 두레 기독교회단의 김진홍 목사와 초창기부터 관계가 깊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과를 졸업한 부인 최영애(우리나라 최초 올림픽 스피드빙상 선수)와 한평생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슬하에 Julia, John, Edie 2남 1녀와 많은 손자 손녀를 두셨습니다. 지난 1-2년간은 혈소판이 관계된 노환으로 건강이 나빠졌으며 의료시설과 요양시설로 옮겨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언제, 어디서나 늘 옆에 있는 부인으로부터 정성스러운 간호를 받았습니다. 하늘의 뜻으로 3월 18일 자택에서 떠나실 때에도 부인이 선배님의 여윈 손을 잡고 병상을 지켰다. 현재 인류가 당면한 코로나 사태로 조용히 준비된 가족 묘지에 안치되었으며 사태가 호전되면 추모식이 따로 있을 것이다. 우리 동문 중에 가족관계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의대 졸업생만도 김경세(66), 차재철(68), 김경인(68), 배성호(71), 문대욱(73) 그리고 이분의 영향으로 미국에 정착한 분들도 많고 의사로서 뿌리를 내린 2세까지 합하면 50명도 더 될 것이며 법조계 등 다른 분야에도 수없이 많다. 가깝게 지내시던 서울대 동문들은 문리대 박윤수, 농대 신동현, 의대 고영철, 고 정진목 님, 고 정낙섭, 이태안 님, 공대 김해식 들이다.

선배님께서 은퇴 전까지 일 하시던 같은 병원에서 수십 년간 전공은 다르지만 ENT 두경부외과를 하던 본인도 삼가 선배님의 명복을 빌고 역경을 이기고 성취하신 훌륭하신 선배님의 일생을 여러분들과 함께 축복 드리고 싶다. 아래는 Mrs. 박종식께서 보내오신 서신과 두 분의 사진이다. (글: 서윤석)

Dear Dr. & Mrs. 서



너무나 오랜만에 Dr. 서의 음성을 듣고 기뻐서 가슴이 마구 뛰었습니다.

저의 사랑하는 박장로님을 천국으로 환송해 드렸지만 실감이 나지 않고, 누워계시던 자리를 자주 바라보게 됩니다.

1928년 9월 12일 평양에서 태어나셨고 2020년 3월 18일 소천하셨습니다. 62년간의 결혼생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축복을 받고, 마지막 숨을 멈추실 때까지도 참으로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천국에 계신 것을 확신하며 한 편으로 감사하나 그분이 한없이 보고 싶어집니다.

Dr. 서와 Mrs. 서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자주 연락하며 지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23일 Laguna Niguel, CA에서 미세스 박종식 드림

이운순(58) 동문 별세

서울의대 미주동창회 회장으로, 학술대회 등 동창회 행사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시던 이운순(58, 정신과 전문의) 동문께서 85세의 일기로 지난 4월 16일 밤 10시에 뉴저지에 위치한 너싱 홈에서 별세하셨습니다. 세계적인 유행병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별세 소식이라 안타까움이 더합니다.

이운순 학형의 부음에 접하여,

같은 정신과 의사로 만하탄과 시외 오피스를 가지고, 열심히 환자를 돌보던 때가 어제 같은데, 이 세상을 하직했다는 소식을 접하여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가족들의 슬픔에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이운순 형과 나는 의대 시절부터 가까이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이유는 형님이고 우리의 은사인 이진순 교수가 나의 외삼촌인 안창성 선생과 동기동창으로 1943년에 졸업한 주근원 교수와 동창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미 후 우리가 살던 뉴욕 서북쪽 라클랜드 카운티에 있는 부라우벨트에 와서 이웃으로 근 10년 가까이 살다가 거의 동시에 좀 더 상류 동네로 이사 갔으나 멀지 않은 이웃으로 계속 지내 왔습니다.

고인 생전에 어려운 환자가 있으면 서로 의논하고, 환자를 의뢰하던 기억이 새롭네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1남 2녀의 자식들을 두고, 나이 차이가 있으나 어린 시절에는 서로 같이 놀던 기억도 새롭습니다. 언제나 자녀들의 안부와 동정을 묻던 기억도 간절합니다. 그렇게 즐기던 테니스와 볼프도 한두번 같이 해 본 기억도 납니다.

이제 관데믹이 났던 때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학형을 보내면서 마지막 고별 장례도 같이 못함을 진심으로 애석하게 느낍니다. 가족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보내면서 애도함과 추도의 말씀을 보냅니다.

- 삼가 김해암

박용화(58) 동문 부인 별세

미시간에 거주하시던 박용화(58)동문의 부인께서 지병으로 지난 3월 6일 소천하시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범세(63) 학형을 추모하며 (1933-2019)

우리 63년 동기, 이범세 학형께서 지난 12월 21일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셨습니다. 돌아가신 이형은 Warren Ohio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저와 같이 하신 분입니다. 레지던트 training을 마치신 후 Portsmouth Ohio에서 Medical Practice를 같이 하셨습니다. 34년간 저희 부부와 동고동락을 하였고 항상 웃음과 친절로 환자들을 돌보시어 그들로부터 많은 감사와 존경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주말이면 저희 부부와 넷이서 골프도 즐기셨습니다. 항상 정원을 예쁘게 가꾸셔서 정원사를 능가하시는지라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Photography에도 취미와 자질이 많으시고 그림을 그리기를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이형이 그린 풍경화는 카메라로 찍은 사진과 거의 흡사할 정도였습니다.

다. 새들에게 모이를 여기저기 뿌려 주어서 많은 새들이 모여서 내는 소리를 들으며 낙원 같은 마음의 즐거움으로 극락 생활을 보내셨던 분입니다.

이제 유명을 달리하시어 가족과 친지를 남겨놓으시고 훌쩍 떠나가시니 섭섭함과 그리움이 가득하여 허탈감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니다.

- 송용덕 드림



이범세 동문의 그림

오랜 영원한 친구 윤홍철(62) 영전에 드림

내가 떠나기 전에 이상무 권익현 이상복 군들과 몇 번 병문안 갔지만 네가 그렇게 빨리 우리 곁을 떠날 줄 몰랐다. 나는 너와 부산고등학교를 같이 다니며 긴 세월 같이 추억을 쌓았지! 라일락 꽃향기 추억 사진을 꺼내놓고 교복 입은 어설플 사진 보면서 추억에 잠기면서 눈물을 글썽인다. 우리 모두 얼마 안 있어 같은 곳을 찾아 만날 때까지 편안히 쉬고 있어. - 정정수

김필영(57) 동문 별세

김필영(57, Pathology 전문의) 동문께서 향년 88세의 일기로 지난 2월 21일 콜로라도에서 별세하셨습니다.



Philip Young Kim passed away peacefully on February 21, 2020 at Littleton Adventist Hospital in Littleton, CO. He was born in Okchun, South Korea, on December 25, 1931 to Kim Jin-sung and Min Heung-soon. After his father, a medical student, passed away at an early age, he moved with his mother to join his uncle's household in Taejon, South Korea. He gained admission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served his country during Korean War, during which he was briefly captured by the enemy. He succeeded in a daring escape and after many ordeals, ultimately graduated with his medical degree in 1957.

Seeking a better life for his beloved mother, Philip e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in 1958 to pursue internship and residency training at Fitkin Memorial Hospital in Neptune, New Jersey, under the mentorship of Dr. Raymond Conover. To comply with visa requirements, he pursued additional training at Quee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in Kingston, Ontario. He returned to the United States in 1964 and completed fellowship at Memorial Sloan Kettering Hospital in New York, NY in 1968, at which time he earned board certification in anatomic and clinical pathology. Following his training, he moved to Philadelphia, PA, where he served as Attending Pathologist at Albert Einstein Medical Center for 30 years until his retirement in 1998. In addition to playing an active role in his department and his hospital, he taught as clinical professor of pathology at Templ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Philip was a devoted son, husband, and father, to whom nothing was more important than family. He is preceded in death by his parents and by Helen Hae-kyung Kim, his wife of 54 years. He is survived by son Lawrence Kim and daughter-in-law Nhung Van of Littleton, CO, and his son Stephen Kim and daughter-in-law Jane Kim of Raleigh, NC, as well as grandchildren, Rachel, Jordan, Alexander, Philip, and David. Philip will be interred in a private family ceremony.

마천일(68) 동문 별세

Toledo Ohio에서 Radiation Oncologist를 하시다가 은퇴하고 Eden, Uta에서 로키산악의 자연을 만끽하던 천재의사 마천일(68) 동문이 2020년 2월 19일 자택에서 지병으로 별세하셨습니다. 장례는 고인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2월 24일 마쳤습니다. 아래는 고 마천일(68) 동문의 가족(따님)의 편지입니다.



Dear Friends and Family,

It is with profound sadness that I am writing to let you know that my father, Chun Il (John) Mah, age 76, passed unexpectedly in the night on February 19, 2020 at his home in Eden, Utah.

My father was the strongest and most adventuresome person. He had a passionate curiosity about the world and a zest for life that he passed on to all around him. He inspired others to step out of their comfort zone and create new experiences; whether they were joyful, awe-inspiring, or a bit more thrilling than one actually wanted. To say he was an avid traveler is a gross understatement. He and my mother explored every corner of the world together, even in spite of the Justice Department asking him not to.

My dad found his version of Eden in Eden, UT, where I he could hike through wild nature, ski champagne powder on sunny mountains, and enjoy the companionship of his wife, whom he loved very much with all his heart. He was the most fun-loving, mischievous grandfather and a loving and supportive father; he's my idol. He was the most dedicated and caring husband to his wife.

Chun Il joins his daughter, Caroline, and will be loved and missed by his surviving wife, Myoung Sook; his daughter and son-in-law, Cathryn and Jason; grandchildren, Sammie and Johnny; and siblings, Young Ja, Sook Ja, Goon Il, and Tai Il.

According to Chun Il's wishes, no funeral services will be held. In lieu of flowers, the family suggests memorial contributions be made to the American Cancer Society (Cancer.org) in honor of his career as a radiation oncologist and those families affected by cancer or the National Park Foundation (NationalParks.org) to honor his love of nature and the outdoors.

We know that this will come as a complete shock to you, as most know him as the most vibrant of people; he really was. He did, however, suffer a series of health complications over the past two years (inability to absorb nutrients from deterioration of the gut, rapid weight loss, residual brain trauma from an accidental fall) and his health and functioning had declined quite suddenly and rapidly over the past few months. We had hoped that his health would turn around, but unfortunately it was too much. He did not want to share his burden with others and I am sure he would want you to remember him as the vivacious person he was.

We know he has touched your lives; he was the foundation for ours. We hope that you can celebrate his life by doing as he would: seeking adventure and savoring the delicious. Please direct correspondence to 5 Shelby, Irvine, CA 92620.

Sincerely, Cathryn & Myoung Sook Mah

기쁜 소식- 후배들의 2020년 미국 병원 매치 발표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저희 후배들의 매치 최종 결과 발표가 났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그래밍, 지역 - 과)

- 박종한 (2008) Rutgers NJMS, NJ - IM
- 이준구 (2008) Brigham and Women's Hospital, MA - IM
- 황정연 (2016) Detroit Medical Center-Wayne State University, MI - Neurology
- 오유정 (2017) The Brooklyn Hospital Center, NY - PEDS
- 최대인 (2017) Mt Sinai Beth Israel, NY - IM
- 김지혜&신상하 (2018) Memorial Healthcare System, FL - IM
- 이지원 (2017) Beaumont Children's - Royal Oak, MI - PEDS
- 김명지 (2019) Memorial Healthcare System, FL - IM
- 김하림 (2019) University of Maryland Medical Ctr. Midtown Campus, MD - IM
- 이지영 (2019) UPMC Children's Hospital of Pittsburgh, PA - PEDS

이번에 매치되지 않은 동문은 다음 번 매치에 다시 참여 예정입니다. 선배님들의 관심과 도움이 없었다면 올 해 같은 좋은 결과는 나올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선배님들의 뜨거운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수련 받고, 또 저희도 앞으로 미국으로 올 후배 동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유정(17) 드림

박종한 (2008졸): Rutgers New Jersey Medical School, NJ - Internal Medicine



저는 2008년 졸업 후 3년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으며 실험실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후 모교 병원에서 인턴 및 내과 수련을 받고 국립나주병원에서 공중보건의로 복무하였습니다. 신약개발 초기 임상 및 중개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도미하여 레지던트를 준비하였고, Rutgers NJMS program에 매치되었습니다. 레지던트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하게도 채영광 (2002 졸) 선배께서 Northwestern University의 Development Therapeutics Clinic을 방문할 기회를 주셔서 초기 임상 진료와 연구의 경험을 쌓고 향후 진로에 대한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레지던트 후의 계획은 신약개발 초기 임상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혈액종양내과 펠로우십 수련을 받는 것입니다. 현재 뉴저지 모리스타운에서 아내, 세 명의 자녀와 함께 살면서 Jackson Laboratory for Genomic Medicine에서 암 유전체와 병리 조직 영상을 이용한 딥러닝(deep learning)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과 4학년 시절에 두 명의 동기와 함께 MEXIM (More EXperience In Medicine) 동아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뉴욕 컬럼비아 대학병원에 실습을 위해 방문하였을 때 미주 동창회 선배님들께 받은 조언과 응원 그리고 Green Project의 시작을 준비했던 시간이 지금까지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지난 해 미주 동창회 선배님들께 따뜻한 환대와 응원을 받고 타국에서 고향에 온 것 같은 파스함을 느낀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황정연 (2016졸): Detroit Medical Ctr/Wayne State University, MI - Neurology



본과 4학년 때 그린프로젝트 후원을 받아 University of Pennsylvania로 선택실습을 다녀온 후 양질의 미국의 수련 환경을 보고 매치 준비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3년간 공중보건의로 복무하며 USMLE 준비와 논문 작성을 병행하였습니다. 덕분에 Neurology 잡지에 논문이 실리기도 하고 미국수면학회에서 발표자로 서기도 하였지만, USMLE step이 여러 단계인만큼 길었던 매치 준비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매 시험, 모든 단계마다 어려운 점이 있었고, 오랜 준비 기간 동안 길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힘이 되어 준 지인들과 같은 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받았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이제야 빛을 보게 된 것 같지만, 매치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길이 열린다는 것, 혼자 보다는 함께 하였을 때 과정이 수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꿈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유정 (2017졸): The Brooklyn Hospital Center, NY - Pediatrics



시간에 덜 쫓기는 진료환경과 유하고 진취적인 교육환경 그리고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워라벨(work-life balance)을 꿈꾸던 중, 선배님들의 조언으로 미국행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본과 4학년 선택실습 기간에 미주동창회 선배님들께서 뉴욕 주변지역에 실습 온 학생들을 뉴욕으로 초대해주셨는데, 그 때 여러 선배님들과 대화를 나누며 미국행에 대한 마음을 확실히 굳혔습니다. 당시 인연을 맺었던 서인석 선배님께서는 이후에도 제가 두 번 더 미국에서 실습하는 동안 많은 도움을 주셨고, 이 감사한 인연이 계속 이어져 선배님께서 재직중이신 The Brooklyn Hospital Center에 매치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 개인적인 사정으로 준비를 중단해야 했던 때도 있었고, 밤에는 당직 아르바이트를, 낮에는 공부하는 것이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했습니다. 여러 단계의 시험과 매치 지원, 인터뷰 여행에 드는 돈이 만만치 않아 금전적으로 부담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과 지속적인 응원을 해주셨던 선배님들, 그리고 언제나 저를 믿어주었던 가족들 덕분에 그 시간들을 지나올 수 있었고, 드디어 미국에서의 수련을 앞두고 되었습니다. 편하지 않은 영어와 홀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긴장도 걱정도 되지만, 제가 바라던 의사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설렘이 훨씬 큼니다. 열심히 배우고 자리 잡아 앞으로 미국으로 올 후배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선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주동창회 선배님들의 관심과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최대인 (2017졸): Mount Sinai Beth Israel, NY - Internal Medicine

선택의학 과정을 통해 처음으로 미국의 의료환경을 접했던 2016년 본과 4학년 여름이 생각합니다. 한국과 달리 천천히 진행되는 외래와 진료에서 처음에는 답답함을 느꼈지만, 각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면서 돈독한 환자의 사의 관계형성과 더불어, 질병 뿐만 아니라 환자가 처한 사회적인 상황까지



챙기는 환자 중심의진료형태에 막연한 동경을 갖게 되었고, 이에 미국에서 수련을 받고 의술을 펼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졸업 직후부터 3년간 공중보건의사로 군복무를 하면서 2017년 2월 Step 2CS, 2018년 2월 Step 1, 2018년 9월 Step 2CK, 마지막으로 2019년 3월 Step 3 시험을 보았습니다. 복무 기간동안 충분히 공부할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 이외에는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복무기간이 끝나지 않은 2019년 11~12월에 인터뷰를 위해 태평양을 건너 한국-미국을 2주 간격으로 3번 오가면서 인터뷰와 진료업무를 병행했던 것이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가장 힘든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국내 보건사업, 올림픽 등과 같은 대외적인 활동, 그리고 모교 선배님들과 함께 일하면서 작성한 학술논문 등으로 인해 인터뷰어들이 제게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고, 매치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약 4년 전 미주동창회의 지원으로 우연히 경험한 한 달 간의 교환학생 기간이 제 미래를 이렇게 크게 뒤바꿔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해외는 여행이 아닌 목적으로 생활해본 적도 없고, 친척을 포함한 가족들 중에도 미주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없기에 홀로 시작하는 인생 2막이 설렘서 두려움기도 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저를 비롯한 젊은 동문들에게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큰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지원 (2018졸): Beaumont Children's Hospital, MI - Pediatrics



안녕하세요. 2018년도 졸업생 이지원입니다. 이번에 Royal Park, Michigan에 있는 Beaumont Children's Hospital에서 소아과 전공의로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가족이 있어 미국에서 트레이닝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또한, attending들과 전공의들 사이에 끊임없는 two-way feedback system이 존재하는 미국 전공의 수련 환경을 경험해보고 싶었으며, 다문화 국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질병군과 서로 다른 문화, 인종, 그리고 종교를 갖고 있는 환자들을 진료하고 대하는 방법도 배우고 싶었습니다.

2018년도에 졸업하고 2018-19년도에 스텝1, CS, 그리고 CK 시험을 보았고, 시험/매치 중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아무래도 학생때와는 달리 다른 동기들 없이 혼자서 준비해야 되었던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치 때 서류 작업들이 많았는데, 추천서를 받는 것이 특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꿈꿔왔던 미국에서 전공의로서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인종 문화 등 사회 여러 면에서 소수자 계층의 환자들을 위한 의사가 되고 싶어 소아과에 지원을 하였는데, 환아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지 (2019졸): Memorial Healthcare System, FL - Internal Medicine



저는 2019년도 의학과 졸업생 김명지입니다. 올해 레지던트 매치에 도전하여 Florida 주의 Memorial Hospital West 내과 프로그램에서 수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본과 1학년 때부터 미국행을 고민하다가 본과 4학년 여름방학에 결심을 세우고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교육에 보다 중점을 둔 수련 환경, 한국과는 조금 다른 환자-의사 관계, 다양한 질환의 스펙트럼, 연구 참여 기회, 일과 삶의 균형 등 여러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미국 레지던시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를 시작하고, 4학년 말이었던 2018년 11월 CK, 2019년 2월 CS, 6월 Step 1, 8월 Step 3 순으로 시험을 보았습니다. 매치는 점점산증을 넘어가는 과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출간 논문이 없고, 미국 임상 경험(USCE)이 선택실습한 달 밖에 없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가장 위축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당장 6월에 미국 이주를 앞두고 새로운 세상으로 간다는 설렘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중요한 것을 놓고 가지는 않을지, 필요한 건 다 챙길 수 있을지 사소한 불안감도 듭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에 과연 병원 생활에 지장은 없을지도 걱정입니다. 이제 의사로서의 경력을 갖 시작하기에, 레지던시 이후의 커리어를 다져감에 있어서도 앞서가신 선배님들의 본보기를 따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하림 (2019졸): University of Maryland Medical Ctr Midtown Campus, MD - IM



미국에 가기로 마음먹은 데에는 사실 거창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한 달 정도 로스앤젤레스에서 지낼 기회가 있었는데,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함께 수많은 한국인들이 타지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는 것이 당시 저에게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코리아타운에 갔는데 마치 한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왜 이 분들은 먼 미국땅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과 동시에, 웬지 미국에서 사는 것이 흥미롭게 느껴졌고, 나 역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이 약 70년이라 가정했을 때, 평생을 한국에서만 살기에는 조금 지루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저의 미국행에 대한 도전은 시작되었습니다.

도전을 시작하기까지는 쉬웠지만 미국에 오기까지는 수많은 관문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비자를 얻는 것부터, 힘들게 통과해야만 했던 총 4번의 시험.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다보니 해외 병원에서 2달간 선택실습을 할 때는 항상 긴장하고 실수하지는 않을까 떨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해외에서 살 계획이 전혀 없었던 남자친구는 저를 위해 미국 유학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제 남편이 된 그 남자친구는 제가 의대를 마치는 동안 홀로 박사과정을 미국에서 해나갔고, 4년동안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장거리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도 하고, 딸(현재 6개월)도 생겼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저는 메릴랜드 볼티모어에서 내과 1년차를 시작합니다. 포기할까 싶었던 수많은 순간들도 있었지만, 먼저 이 길을 가신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삶을 보며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꿈만 같았던 오피 레터에 서명을 하고,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어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노력하고 배우는 자세로 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베토벤과 나의 감사의 노래



어찌하여 그의 감사의 노래가
또 나의 감사의 노래가 되었는가
(Ludwig Van Beethoven 1770-1827)

2020년은 한국 역사와 한국 사람에게 심오한 의의를 지닌 해다. 올해는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 식민 점령에서 해방된 지 75주년, 한국동란이 발발한 해로부터 70년이 되는 해다. 하지만 여기에 덧붙여 음악 애호가이며 레코드 수집가, 또 평생 베토벤을 영웅 숭배하던 나에게 올 해가 그의 출생 250년이라는 것이 우리 역사와 교차되는 또 하나 크게 기념할 일이 되겠다.

70년 전, 17세의 어린 내가 홀로 벽지 한촌에서 내 평생에 가장 길었던 여름 두 달의 피난살이를 마치고 유엔군이 인민군을 축출하고 수복한 서울에 돌아와 가족과 재회하게 된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가을비 속에 새벽이 가까워 오는 것을 모르고 홀로 이 베토벤의 감사의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유수같이 흘리고 감사를 드렸던 해이다. 그 새벽 나의 눈물로 베토벤의 감사의 노래가 내 감사의 노래가 되었고, 나는 이 현악 사중주곡 3악장이 바로 나의 감사의 노래라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한때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잃었을 때 가브리엘 포레(Gabriel Faure)의 인자한 진혼곡을 듣고 위로를 구하였었는데 포레는 그의 진혼곡에서 “진노의 날(Dies Irae)”를 빼고 “천국에서(In Paradisum)”를 삽입하였다. 선친 별세 후 이제 그의 종교와 교회를 떠난 내게는 베토벤의 “감사의 노래”가 진혼곡을 대신하는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위자의 음악이 되었다.

Heiliger Dankgesang eines Genesenen an die Gottheit, in der lydischen Tonart (병석에서 회복하는 환자가 신위(神位)에게 드리는 거룩한 감사의 노래)
Lydia조로 String Quartet No. 15 in A minor Op. 132 3rd Movement Molto Adagio

이것은 베토벤 자신이 이 느린 악장에 부친 제목인데 그가 신위란 말을 쓴 것은 라인랜드 본에서 출생 성장하고 비엔나에서 활동한 그가 카톨릭교회의 교리에 귀의하거나 신앙 고백함이 없이 평생 종교적 자립성을 유지하였다는 표시이기도 하다. -그는 범신론자였다.

몇 해 전 우리 가족이 라인 강 여행을 계획했을 때 제일 먼저 가장 인기 높은 바이킹 리버 크루즈(Viking River Cruise)를 검토해 보았었다. 내 견해로는 가격이 쓸데없이 비싸다는 생각이 앞섰고 나는 여정에 본(Bonn) 정박이 들어있지 않은 것이 마음에 안 들어 우리가 독자적으로 기차와 나룻배를 이용하는 여정을 꾸렸다. 대체로 본은 동서독 통일 이전에 2차 대전 후 서독의 임시수도였기도 하였지만 나에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라인 강변 도시가 베토벤의 출생지이고 그가 21세에 비엔나로 올라가 하이든의 제자가 되기까지 살았던 생가가 지금 베토벤 하우스라 일컫는 뮤지엄으로 복구되어 서 있다는 것이었다. 베토벤 자신도 자신의 생애에 이 강이 미친 큰 영향을 생각하여 라인강을 “Unser Fater der Rhine”(우리 아버지 라인강)이라고 일컫기도 했었다. 라인강 전장을 상류로 향해 올라가면서 본에 들릴 일생에 첫 번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기회를

강 상 진(59, 대뉴욕)

무심히 포기한다는 것은 나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런 행위는 나에게 마치 유교 교육을 받은 이가 자기 선조의 본관 고장을 지나가면서 선조가 누워있는 선산에 올라가 성묘를 드리지 않는 것과 같은 예의 없고 몰지각한 행동이라고 생각되었다.

베토벤이 그의 30대 초부터 청력장애로 고전하던 역사상 전무후무의 귀머거리 작곡가였던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는 1802년 31세에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하고 하이리겐슈타트(Heiligenstadt) 유서를 쓰지 않았던가. 전문가 집단의 최신 연구결과에 따르면 그의 청력 상실의 원인은 청골경화증(聽骨硬化症)이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룩한 감사의 노래”가 작곡된 1825년 (그의 연령 55세이자 사망 2년 전이었다), 홀몸으로 사는 그는 자기 치다꺼리에 빠앗기는 시간에 덧붙여서 너무도 많은 질환으로 신음하며 작곡에 바칠 시간을 찾을 수 없는 병약자였다. 그를 활동 불가능하게 하는 여러 질환에는 간경변증, 통풍, 만성 소화불량과 복통, 할 새 없는 두통과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만성 우울증 등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그는 언제나 작곡에 바칠 시간이 없다는 것을 통탄하였었다. 이 무렵의 그의 생활신조는 “행위 없는 날이 없노라(Nulla dies sine re)”였다. 그러다가 잠시 병고에 시달리지 않는 며칠을 지냈을 때 이 짧은 소감을 기념하기 위해 그는 이 “감사의 노래”를 작곡했다. 대부분의 우리가 온전한 건강을 누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지내는데 베토벤은 자기 예술에 바칠 수 있는 건강한 며칠을 겨우 누렸을 때 신위에게 “감사의 노래”를 작곡하였다.



나의 레코드 수집은 중학교 입학 무렵부터 시작되었다. 중학교 3년 무렵부터 여섯 명의 친구들이 무리지어 다녔는데 그중 세 명이 고전음악과 레코드 수집에 공통된 취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다지 많지 않았던 레코드에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 모든 것을 나누어 즐기며 우리 음악 감상의 범위를 확대하였었다. 4학년 (지금의 고등학교 1학년)이 될 무렵에는 베토벤의 아홉 개의 교향악 중에서 다섯 곡-9번 “합창”은 서울시공관에서 해방 후 발족한 고려 교향악단이 한국 최초의 연주를 하였는데 우리 중학교 음악 선생님이 바리톤 솔로이스트로 등장하셨었다. 바이올린 협주곡, 피아노 협주곡 1, 3, 5번 (황제), 레오노레 서곡 3번 피아노 소나타 서너 개 등을 연이어 들어 이 음악이 귀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러다가 여러 음악 서적, 음악 사전 베토벤 전기 등에서 그의 만기 6개 현악 사중주곡이 음악 역사상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비할 데 없이 송고한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이 음악을 듣고 싶은 갈증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우리가 해방되었을 무렵 우리의 물질생활을 생각해 본다.

일본 식민자들은 우리나라를 일본 생산품의 텅텅 시장으로 만들어 우리가 생산 기업을 일으킬 하층 구조를 만들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빈곤하고, 기본적인 생활품인 성냥과 치약도 없는 사회에서 허덕이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레코드 수집에 관심이 있다면 일본인들이 분노의 보복이 두려워 황급히 한국을 떠나면서 놓고 간 물건들을 매매하는 중고품 시장을 찾아 헤멜 수밖에 없었다. 그중 나의 단골 가게는 종로2가 인사동 입구에 있던 백조사였다. 이곳 주인은 키가 작고 항상 흰 셔츠에 검은 양복, 나비넥타이를 매고, 콧수염을 기른 근엄한 신사였다. 우리가 보기엔 음악에 박식하고 젊은 사람들을 값진 음악으로 선도하려는 진지한 의도를 가진 어른같았다. 그에게 내 욕망을 설명했는데 그는 자기가 알기로는 부시 현악사중주단(Busch String Quartet)이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런던 EMI 스튜디오에서 녹음하여 브리티시 콜롬비아 레이블로 출판된 만기 여섯 개 사중주곡 전집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나는 그에게 이 앨범 중 어느 하나라도 나타나면 꼭 보관해 달라고 신신당부하고 그날부터 용돈, 점심값 등을 절약해 가면서 기금을 저축하기 시작했다.

몇 달 후 백조사에 들렀더니 주인이 나에게 “학생은 참 행운아야. 원하던 앨범이 들어왔어!”라고 말했다. 그가 나에게 보여 준 것은 35회전 SP판 5장이 들어 있는 Telefunken 앨범인데 베토벤의 프로필과 연주가 빌헬름 쾨프(Wilhelm Kempf) 이름과 연주 곡명 “해머클라비어 피아노 소나타(Hammerklavier Piano Sonata)”가 밖에 부각되어 있었다. 그러나 앨범의 내용물은 틀림없는 현악 사중주곡 15번이었다.

새로 찾은 보배를 움켜쥐고 안고 집에 돌아와 밤잠도 자지 않으면서 SP 5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성기를 틀어 들었다. -우리는 유성기라 불렀고 일본 사람들은 축음기라 하였다- 하지만 음악은 실제로 들었으나 앨범 노트가 없어서 음악의 내용을 종잡을 수가 없었다. 단지 3악장이 녹음된 5번째 면에 독일어로 베토벤 자신이 붙인 감사의 노래 제목이 쓰여있었는데 4학년 때 시작한 독일어의 짧은 미천이 있어 “Genesenen” 한 단어만 사전을 찾은 후 베토벤의 제목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제 더 필요한 것이 이 까다롭고 신비로운 음악에 대한 해설이다. 도대체 이 음악의 원천이 어디 있으며 무엇을 표현하는 것이며 무엇을 의미한 것일까?

또다시 인사동에 준비한 중고 책 가게를 뒤지고 다녔다. 몇 주 후 다행히 한 책방에서 아와나미신쇼로 출판된 J.W.N. Sullivan의 “Beethoven: His Spi-ritual Development (1929)”의 일본어 번역판을 발견해 이 책을 읽고 내가 새로 얻은 보물의 함축과 윤곽을 어렵듯이나마 깨닫게 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설리반은 15번 A단조가 여섯 곡 중 가장 덜 신비로운 작품이라고 말하였다.

뻗속으로 스며드는 냉기를 담은 곳은 가을비가 온종일 내렸다. 나는 히치 하이킹으로 얻어 탄 국군 6륜 포장 트럭 (당시 한국 사람들은 이 트럭을 GMC라 불렀다.) 뒤에 홀로 웅크리고 앉아 추위에 이를 갈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10월 중순에 몸에 걸친 옷이라고는 8월 초 서울을 떠날 때 몸에 걸쳤던 여름 학교 교복인 코발트색 면 노-타이 셔츠와 얇은 회색 바지뿐이었다. 약 136마일 (뉴욕과 워싱턴 DC 간의 거리)에 달하는 비포장 도로를 여행하는데 새벽 4시부터 자정까지 걸렸다. 굶은 비에 도로가 진

창이 되고 웅덩이에 차바퀴가 빠져 움직이지 못한 적도 있었다. 일본 식민자는 우리의 고혈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착취하면서 그중 한 푼도 우리 땅에 재투자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이때 우리의 새로 탄생한 공화국은 집권 2년 째였다. 한강을 공병대가 임시로 마련한 부교를 넘어 건넌 다음 군인들이 나를 종로 4거리 종각 앞에 내려 주었을 때는 계엄령 하 저녁 7시에 시작되는 통행금지 시간 5시간 후였다. 온 동네가 정전으로 압축에 싸여 있었고 화재로 내부가 전소된 화신 백화점(지금의 종로타워)은 매엽에 그물린 외관만이 남아 있었다. 거리에는 파괴의 흔적은 없었으나 아직도 포탄의 화약 냄새가 짙 차 있었다. 혹시 순찰하는 경찰이나 헌병에게 발각되어 체포될까 길가 건물의 정면 벽을 타고 계걸음으로 집이 있는 안국동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공평 골목을 지나 관훈동으로 꺾어 들어섰다. 전화의 파괴를 온 동네가 면하였던 것 같고 인사동에서 두 번째 집인 우리 한옥도 여전히 서 있었다. 한옥대문 앞에 서기는 하였으나 감히 문을 두들길 용기를 내지를 못하였다. 온몸이 젖고 춥고 떨렸으나 나 자신의 생각에 잠겨 우두커니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우리 가족이 살아남았을까. 그렇다면 집에 돌아와 있을까. 홀로 남하하신 아버지, 그리고 구두방에 수리한 구두를 찾으러 갔다가 못 돌아와 나와 함께 피난길을 떠나지 못한 세 살 아래 동생 한은 살아 있을까?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최악의 운명이 두려워 한참을 문을 두드리지 못했다. 한 삼십여 분을 비를 맞으며 문전에 서 있었으나 싫다. 드디어 길가의 벽돌 조각을 주어 대문을 두들겼더니 집안에서 인기척이 나고 큰형이 나와 문을 열어주었다.

새벽 1시가 지나 온 가족이 안방으로 모여 눈물로 서로를 포옹하였다. 드디어 어머니가 아랫목에 자리를 잡으시고 우리는 제각기 겪은 전쟁과 얽힌 개인 경험담을 나누었다.

마흔넷. 본인의 교회와 교인 외에는 바깥세상을 전혀 모르고 살던 우리 어머니, 우리 집을 인민위원회가 압류하고 우리 가족을 거리로 쫓아낸 후 -6월 27일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한 다음날이었다- 11명의 머리 위에 지붕을 마련하고 이 큰 식구를 먹여 살린 장하고 강건한 우리 어머니가 이 저녁에는 가냘프고 연약해 보이는 삼십대에 갓 들어선 젊은 여인처럼 곱게만 보였다.

우리 식구는 이해 5월에 결혼하고 새 거주를 찾고 있던 23세 장형으로부터 두 살 된 막내까지 포함 8남 1녀, 9남매, 새로 맞은 형수 그리고 어머니 해서 11명이다.

남한 정부의 관료 생활을 하던 아버지는 미군정 시절 강원도 내무국장을 지내셨다. -전쟁이 터진 6월 25일 일요일에 공무로 출장 중이라 집에 없으셨고 다음날 인민군이 무방비 도시 서울에 침입한 후 대낮에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셨다. 이때는 벌써 이승만 정권은 한강 인도교와 철교를 모두 폭파하여 절단한 후 서울을 버리고 남하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자기는 결사코 공산군을 피하여야 한다며 내복 한 벌과 셔츠를 책가방에 넣고 집안에 있는 모든 현금을 거두어 갖고 남하의 길에 나스셨다. 정부를 따라 남하를 계속한 아버지는 부산 미군 항만 사령부에서 행정관으로 일하다가 -아버지는 영어 회화에 능통하셨다- 일주일 전 미군 수송기 편으로 귀가, 가족을 방문한 후 직장으로 돌아가셨다고 한다.

아버지가 부산에서 돌아오시던 날의 이야기다. 어머니를 돕고자 거리에 서 신문을 팔고 있던 일곱 살 아래 동생 (그때 10살) <다음면에 계속>

Webmaster

주 광 국(68, 버지니아)



2015년 가을이었다. 당시 서울의대 미주 동창회 회장이던 서윤석 동기 부탁으로 동창회 treasurer를 맡고 있어서 자주 만나 동창회 일을 상의하곤 했다. 서윤석 회장이 우리 동창회 website를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여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했다. 그 당시 공식적인 동창회 website는 없었지만 우리 동창회 동문이 사적으로 만든 website가 있었고 domain도 우리 동창회를 뜻하는 website를 운영하고 있어 많은 동문들이 우리 동창회의 공식 website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적으로 운영되어 동창회 소식과 공지 사항 등을 게재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아서 우리 동창회를 대변하는 공식 website를 만들 필요성을 느꼈다. Website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Website는 전문적인 회사에 맡기면 쉽게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다. 그 운영도 전문 회사에게 맡길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전문 회사에게 운영비를 지불해야 하고 동창회 소식을 신속하게 전할 수도 없고 해서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Website는 일반 computer와 달리 programming language를 사용하므로 PC programming을 배워야 한다. 그것을 배우지는 못했으나 Medical Science에서 사용하는 FORTRAN programming을 배웠다. Nuclear medicine practice 할 때 General Electric company에서 생산한 Nuclear gamma camera와 computer를 구입해서 사용하여 GE medical system에서 사용하는 FORTRAN programming을 배웠고 그것을 이용하여 실제로 program을 만들어 nuclear medicine practice에 사용했었다. 이 FORTRAN Programming은 PC Programming과 아주 다르지만 원리는 조금 비슷했다. 그래서 동창회 website를 만드는 책임을 의뢰 받았을 때, 나로서는 걱정이 앞섰지만 말을 수가 없었다.

그 당시 미국에 있는 한국인 여의사를 대변하는 단체의 website를 만들 때 참여했던 남명호(81) 동문이

Virginia에 살고 있어 서윤석 회장과 함께 우리 세 사람이 동창회 website를 만들기로 했다. 남명호 동문의 추천으로 Northern Virginia에 있는 Gimga Web Design Company에 의뢰하여 website를 만들기로 했다. 여러 번의 회의와 많은 file을 주고받은 후 10개월 만인 2016년 9월 15일 한국 추석날에 드디어 “www.snuammaus.org”와 “www.snuammaus.com” domain name으로 우리 미주 동창회 website를 launching 하게 되었다. Website home-page에는 학창 시절 매일 왔다갔다하고 들락날락하던 강의실이 있던 서울대학교병원 빨간 시계탑 건물(문화재 사적 제248호로 지정되어 있고 지금은 의학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을 간판 사진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website를 클릭해서 병원 시계탑 건물이 보이는 homepage가 떠오를 때 약간 희열을 느끼며 감개무량했다.

Website를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우리 세 사람은 website를 만든 회사에서 한 시간의 강의 “How to edit website”를 받았지만 아무도 PC Programming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어떻게 편집해야 되는지 idea가 없었다. 그래서 programming을 독학으로 공부하기로 하고 internet을 뒤져보았다. 생소한 JavaScript, HTML, CSS 등 새로운 languages를 이해하려고 공부도 하고 노력을 많이 했으나 수박 겉핥기 식으로 훑어보는 수 밖에 없었다. 동창회 사무실에서 새로운 소식이나 공고 사항이 있으면 practice를 많이 해서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만 하게 되었다. 실제로 새로운 소식을 동창회 사무실에서 보내와서 동창 website에 올려야 하는데 상의해 볼 사람도 없어서 혼자서 강의 내용과 program protocol만 보면서 시행착오를 여러 번 반복하다가 마침내 그 소식을 게재할 수 있었다. 대단한 성과였고 그때의 기쁨은 말할 수 없었다. 동창회 소식, 사는 이야기, 뉴스와 공지 사항 등 간단한 소식은 올렸으나 동창회 학술대회 때 찍은 사진들과 학

회 소식을 게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한 시간 강의 받은 “How to edit website”를 반복해서 읽어보고 그대로 따라 했으나 조금만 틀에서 벗어나면 쉽게 되지 않아 몇 번이고 이리 해보고 또 달리해보고 해서 많은 시간을 소비한 후 마침내 성공할 수가 있었다. 이제 조금씩 자신이 생겼다. 그러나 진짜 어려운 문제는 ‘시계탑’ 신문을 Website에 게재하는 일이었다. 간단하게 설명을 받았지만 강의 받

을 당시 정확한 프로그래밍의 지식이 없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가버려 어떻게 해야 할지 idea가 없었다. 시계탑의 16면을 따로따로 한 페이지씩 올리면 나는 쉽지만 동문들이 읽을 때 한 장 한 장 열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좋은 방법은 16면을 한 장의 파일로 만들면 필요할 때 scroll down 해서 쉽게 읽을 수 있고 또 소요되는 메모리 양도 적다. 그렇게 만들려면 출판사에서 받은 PDF file을 불필요한 부분은 자르고 JPEG file로 전환한 후 그 모든 파일들을 순서대로 부쳐서 하나의 JPEG file을 만든 후 다시 PDF file로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과정을 internet을 통해 program apps를 이용해야만 했다. 그러나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전혀 idea가 없었다. 전전긍긍하면서 “How to edit website” 메모지만 열심히 읽었지만 묘수가 나오지 않았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성현의 말씀대로, University of Illinois에 다니는 처 외손자가 미국에서 첫 Thanksgiving 방학을 맞이하여 일주일을 우리 집에서 머물렀다. 우리 집에 올 때까지는 그가 무엇을 전공하는지 전혀 몰랐었다. 그는 한국에서 외국어 고등학교를 나온 후 Champaign, Illinois에 있는 University of Illinois에서 Computer Science를 공부하는데 Programming을 전공하고 있었다. 나는 얼마나 그가 반가웠는지 마치 하느님께서 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준 것으로 생각하기도 했다. 내가 못해서 찢절매던 시계탑 파일을 쉽게 website에 게재해 주었다. 필요한 programs을 internet에서 download 하고 또 하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어 열심히 메모해 두었다. 그리하여 나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나 혼자 website를 편집할 자신이 생겨났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침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라는 성경 구절이 떠올랐다. 우리 동창회 website도 자리 잡혀갔다. 동창회 소식, 학술대회의 많은 소식과 사진들, 시계탑 그리고 사는 이야기들을 website에 편하게 게재할 수 있었다. 미주 동창회 이사회에서도 website committee에 대해 발표할 수 있었다. 더욱이 website를 맡은지 일년이 지나 아주 무척 젊은 후배, 2009년 졸업한 송경민 동문이 associate chair를 맡게 되었다. 그는 medicine 뿐 아니라 IT에도 조예가 깊어 IT venture 사업에 뛰어든 젊은 인재였다. 그가 있어서 이제는 마음 든든하고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극복할 수가 있게 되었다. Website를 launching 한 이래 외부의 전문 회사의 도움 없이 우리의 힘으로 동창회의 새로운 소식, 학술대회 소식과 프로그램, 많은 대회 사진들, 동문들의 최근 소식과 사는 이야기, 시계탑 등을 게재할 수 있게 되어 아주 보람 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방인

아해 김태형 (63 조지아)

한국에서 태어났다
의과대학을 나왔다

미국엘 왔다
선진 의학을 배우러
힘들기도 했다
이방인이라서

한국에 돌아왔다
선진 의학을 가르치러
힘들었다
이방인 취급을 받아서

은퇴를 했다
어디서 살지
이방인으로 미국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한국에서?

<전면에서 계속> 영이 종로 사거리 화신백화점(현재 종로타워) 앞에서 신문 무더기를 쌓아 놓고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구름 한 점 없고 햇살 밝은 날에 갑자기 신문 위에 물방울이 떨어졌다. 고개를 들어보니 거기 아버지가 서 계시지 않는가. 부자는 서로 얼싸안고 종로 네거리에서 부끄러움을 저버리고 목을 놓고 울었다고 한다.

8월 6일. 내가 서울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던 날, 136마일의 도보 여행을 위해 수리하러 내보냈던 구두를 찾으러 나섰다. 실종됐던 세 살 아래 동생 한은 그날 거리에서 인민군에서 붙잡혀 소위 ‘의용군’으로 징발되어 북향하는 강행군을 시작하였는데 우리가 미아리 고개 언덕 비탈길을 넘어 무렵 미공군의 공습을 맞게 되었다. 대열을 향해 길가 숲속으로 숨으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그는 길가의 절벽을 타고 굴러떨어져 도망치고 수많은 뒷골목을 헤매어 사흘이 걸려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평생 강인함이 없었던 그의 성격에 이 위험을 무릅쓰는 모험은 감탄할 일이었다. 어머니는 큰형이 어떻게 두 달 동안 마룟장

아래 숨어 살면서 인민위원회의 가택 수색을 피했는지 말씀하셨다. 뼈저리는 긴 이야기들이 밤새도록 끊이질 않을 것을 눈치 차린 어머니는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 휴식하라고 말씀하신 후 한 마디 더 보태셨다. “우리 집을 그자들이 인민위원회 숙소로 썼었다. 그런데 네가 듣는 것 같은 음악은 빨갱이들한테는 소용이 없었던 모양이더라.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더라. 네 레코드와 유성기는 사랑채 네 방에 가져다 놓았다.”

오랫동안 불을 안 켜 사랑채 내 방은 냉랭했고 전기가 없으니 호롱불을 들고 들어섰다. 이불에 눕기 전에 먼저 백장이 못 되는 내 레코드들을 먼저 보았다. 그러다가 제일 먼저 뽑아 든 앨범이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곡 15번이었다. 이제 내에게는 감사를 드리는 일밖에는 남은 할 일이 없는 데 베토벤이 이미 그 길을 나에게 보여 주지 않았던가. 우리 가족이 목숨을 잃지 않고, 다치지 않고, 우리 집을 면하지 않았던가. 어찌 이것을 베토벤의 건강했던 며칠간의 소강에 비할 것인가.

유성기 태엽을 감은 다음 앨범의 제5면을 유성기에 얹고 바늘을 판에 내려놓았다. 피곤이 몰려 잠자리에 누웠으나 잠이 오지는 않았다. 나는 음악을 언어로서 기술할 수 있는 재주도 없고 또 기술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았지만 은은히 시작되는 찬송가 같은 멜로디가 흘러나오자 내 눈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였다. 바로 우리 신변에서 전개된 동족 상잔의 전쟁, 거리에서 사는 집 없는 슬픔, 견딜 수 없는 굶주림, 의미 없는 주검들, 이데올로기의 이름으로 감행된 대살육, 끊임없는 주검과 박해의 공포, 노숙의 뼈저리는 냉기, 무전 도보여행의 근육의 수심, 표현할 수 없는 대량 파괴 전쟁의 두려운 경험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에 훤히 전개되었다.

이제는 모두 지난 일이니 해방감과 안도감에 몸을 맡기는 수밖에는 다른 감정을 생각할 수가 없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여 베개를 적시면 음악이 끝나고 베개를 뒤집고 다시 태엽을 감고 같은 면에 바늘을 다시 내려놓았다. 이리거를 되풀이하다 보니 베갯보에 눈물이 고여 웅덩이가 된 것 같이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다 새벽이

가까워오니 굶은 비가 멈추고 길가로 향한 들창으로 차가운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일어나 3악장의 시작 “새로운 힘을 느낀다(Neue Kraft fuhlend)”로 레코드판을 바꾸었다. 그때의 그 전쟁의 소강이 계속되어 평화가 오리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석 달이 채 못되어 중공군이 인해전술로 남침하여 우리가 또다시 서울을 버리고 피난 길에 나서게 될 것을 이날 밤 그 누가 꿈엔들 상상할 수 있었던가!

이 글을 내 뒤에 온 아들 준, 딸 미란 그리고 손자 리암에게 바친다.

후기: 부산으로 피난하면서 감사의 노래 레코드를 버리고 떠났다. 레코드 기업의 발전/변천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SP, LP, Stereo, CD 등 여러 변화를 경험했는데 2008년에는 1930년대에 EMI가 녹음했던 부시 현악 사중주단 (Busch String Quartet)의 베토벤 만기 현악 사중주집이 디지털화 절차를 겪어 CD 3장으로 재출판되어, 이제 나는 그날 그 늦가을 비 내리던 밤에 눈물로 들던 그 감사의 노래를 똑같은 연주로 언제나 들을 수가 있게 되었다.

에드워드 호퍼의 유화 야간작업자들 NIGHTHAWKS

정 유 석(64, 북가주)

에드워드 호퍼(Edward Hopper, 1882-1967)는 미국의 사실주의 화가로 유화, 수채화, 판화 그리고 출판미술 등으로 많은 작품을 남겼다. 미국 미술이라면 보통 이차대전을 전후로 뉴욕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된 소위 추상표현주의 미술만을 연상하기 쉬우나 사실 미국에서는 사실주의 미술의 전통이 면면히 내려왔다. 우선 20세기 초부터 로버트 헨리(Robert Henri), 조지 벨로스(George Bellows), 에버렛 신(Everett Shinn), 존 슬론(John Sloan) 등이 주도한 애쉬칸 학파(Ashcan School)가 활발한 활동을 벌였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8인회'(The Eight)가 결성되었다. 그 뒤를 이어 토머스 이킨스(Thomas Eakins), 조셉 스텔라(Joseph Stella) 에드워드 호퍼, 존 싱어 사전트(John Singer Sargent), 노먼 로크웰(Norman Rockwell) 등이 사실과 화풍으로 뒤를 이었으며 앤드류 와이어스(Andrew Wyeth) 등이 근래에까지 활동해왔다.

호퍼는 뉴욕시 위쪽 허드슨 강가에 요트 제조 중심지인 어퍼 나이악이란 마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포목상

으로 성공해서 가세는 중산층에 속했다. 그는 공부를 잘했고 5살부터 그림에 재능을 보였다. 고교 시 동네 마을 산업시설에 영향을 받아 선박 설계사를 꿈꾼 적도 있었으나 미술을 전공하기로 결심하고 1899년 뉴욕 미술 및 디자인 학교(현재 파슨스 디자인 학교)에 입학했다 부모는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서 상업 디자인 공부를 하라고 격려했다. 그곳에서 선생이었던 로버트 헨리는 세상을 흔들 그림을 그리라고 했다 "대상이 문제가 아니고 대상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 중요하다. 미술이란 데 집착하지 말고 네 인생에서 흥미를 자아내는 그림을 그려라." 이 시절 조지 벨로스와 존 슬론같은 화가들로 부터도 그림을 배웠다.

화가로서의 처음 20년간 그는 그리 행복하지 못했다. 유화는 거의 안 팔렸기 때문에 별로 흥미가 없던 삽화, 장정, 포스터 같은 출판미술이나 상업 미술에 의지하면서 생계를 이었다. 유럽에도 몇 번 갔지만 당시 파리를 중심으로 유행했던 야수파, 입체파, 초현실파 같은 추상미술에 대해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당시 그렇게 명성을 누리던 피카소조차도 만나보질 못했다. 대신 호퍼는 거리, 카페, 오페라극장가를 소재로 삼아 사실화풍의 그림들을 그렸다.

불운하던 시절 그는 우울증으로 인해 손조차 들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했고 화풍에서는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불행만이 넘쳐흘렀다. 우

울증과 무력감에는 의사 처방에 의해 벤제드린이란 각성제를 복용했다. 임상에서 항우울제가 우울증 치료 약으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60년대였다. 그래서 그전에는 무기력한 환자에게는 각성제가 가끔 사용된 것 같다. 그러나 각성제는 과용하거나 잠기간 사용하면 불면증, 흥분, 심하면 환각이 수반하는 폭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는 않았다.

1913년 아버지가 사망하자 그는 맨해튼으로 옮겨 그리니치 빌리지에 있는 워싱턴 스퀘어의 한 아파트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다. 유화에서 주목을 받지 못한 그는 판화에 손을 대어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1920년대 초반에는 오히려 판화가로 명성을 날렸다.

1923년 그는 조세핀 니비슨이란 여인과 결혼하면서 인생의 전기를 맞았다. 그녀는 동료 화가로서 호퍼의 경력과 인터뷰를 관리했고 모델이 되어 주었으며 인생의 훌륭한 동반자가 되었다. 그의 관심은 프랑스의 건축물에서 미국의 도시와 전원 풍경으로 이동했다. 드디어 그의 수채화나 유화도 대중의 관심을 받아 발표되는 대로 팔렸다. 대공황 시기에도 다른 화가와 달리 휘트니 미술관이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그의 작품을 대량으로 사들였다.

1942년에 발표한 '야간작업자들'(Nighthawks)은 그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낮에는 사람들로 들끓었을 그리니치 빌리지의 야간 풍경. 한밤중에도 문을 여는 식당이 화면의 2/3를 차지

한다. 시가지는 초록색을 띄우지만 화면은 식당에서 비치는 강한 형광등으로 조명되어 있다. 어디선가 재즈의 선율이 흘러나올 법도 한데 아주 조용하다. 그 안에는 한 쌍의 남녀와 그들에게 봉사하는 종업원, 그리고 멀리 떨어져 혼자 앉아있는 사내, 모두 네 명이 등장한다. 이차대전 중이어서 그런지 전체로 침울한 분위기며 호퍼 특색의 공허함과 외로움이 배어있다.



'군중 속의 고독' 아니면 '도시인의 고독'이라고나 할까. 호퍼는 사실주의 화가지만 그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었다. "위대한 미술은 미술가 내부 생활을 외부로 표현한 것이다. 내부 생활이란 작가가 세계를 보는 개인적인 통찰력이다. 아무리 기교를 부려도 상상의 본질적인 요소를 대치할 수 없다." 이 그림은 1942년 시카고 미술관에서 사들여 그곳의 소장품으로 되어있으며 지금도 '우울한 현대인의 모습'을 잘 표현한 걸작으로 알려져 있다.

말년에는 몇 번 전립선 수술을 받은 등 질병에 시달리다가 1967년 워싱턴 스퀘어 근처의 자기 스튜디오에서 사망했다.

안개 속으로

고 마천일 형을 추모하며

노 영 일(68, 시카고)

마천일 형과 내가 처음 만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58년전 떠꺼머리 시절 서울대 의예과에 입학하였을 때였다. 가나다 순서로 출석부 번호를 매겼는데 노씨 다음에 마씨가 와서 그렇게 내 짝이 되었다. 외대 6년간 모든 실습시간에 늘 같이 붙어 다녔다. 그러다가 친하게 되었다.

나는 항상 그를 경이롭게 생각하였고 그의 뛰어난 명석한 두뇌와 조화 있는 인격에 감탄을 하곤 하였다. 그의 판단력은 정확했다. 그는 마치 문무를 겸한 지장과도 같았다. 한 가지 흥미 있다면 그는 좀 게을렀다. 아니 게으르다기보다는 많은 천재들이 그랬듯이 틀에 박힌 일상을 싫어했다. 그는 자주 결석을 하였고 심지어는 교수들이 출석부를 들고 들어와 "마천일" 하고 불려서 "네" 소리가 나오면 "그럼 오늘은 전원 출석!" 하고 끝내버리곤 하였다. 나는 그러다가 이 친구가 낙제나 하지나 않을까 조마조마하였다. 그래도 그는 무사히 의대를 졸업하였다. 그의 졸업 성적표를 훑쳐본 적이 있는데 100명중 상위 15%였다. 나는 놀라움에 질투심까지 느꼈다. 그의 노트에는 몇자 써있지도 않았다. 그렇게 자주 결석을 하니 노트가 부실할 수 밖에 없었다. 나는 시험 때면 안달복달하고 노트를 달달 외우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으면 그는 결눈으로 슬쩍 내 노트를 훑쳐보고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리고는 내가 노트 정리를 잘한다고 칭찬했다. 노트가 없으면 생화학 유전학 등 두껍고 골치 아픈 원서를 슬슬 뒤적이며 시험공부를 했다. 그가 재시험 걸리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두 사람이 한조가 되어 하는 해부학 실습 때는 나 혼자 오랜 시간 해부를 해놓으면 그는 늦게 나타나 쓱 한번 보고 다 아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내가 꼼꼼하게 해부

를 해봐 자기는 보기만 해도 된다고 했다

나는 궁금해서 도대체 너는 학교에 안 오면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대개 책을 읽는다고 했다. 책을 읽다가 늦게 자면 아침에 깨기가 힘들고 기왕 지각을 할 바에는 아예 다시 읽던 책을 읽는다고 했다. 그는 여러 방면의 책을 게걸스럽게 읽었다. 예과 때 노는 시간에 양치바른 계단에 앉아 책을 읽는데 무슨 책을 보나 했더니 영문학 원서를 읽고 있었다.

그는 몸도 단단하여 팔씨름해서 지는 적이 없었다. 운동도 잘하는 편이었다. 싸움이 벌어지면 겁내고 물러나는 법이 없었다. 한 번은 조니 위커 위스키 한 병을 거의 다 마시고 남산 육교 난간에 올라가 걸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술에 센가 객기를 보여 주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꽃을 좋아했다. 자기는 아름다운 꽃에 둘러싸여 살고 싶다고 했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 꽃잎을 따서 먹곤 하였다. 그러다가 독초를 먹어 한번 혼란 적도 있었다.

효자동 그의 집에 가면 대문에 문패가 빛이 나란히 걸려 있었는데 마종도, 마천일, 마태일, 마군일 이라고 한문으로 쓰여져 있어 마치 사두마차를 보는듯했다. 그의 집에서나 우리 집에서 위스키를 마시며 밤새도록 이야기한 기억도 난다.

그는 의대 졸업 후 예상 밖으로 약리학 교실에 남았었다. 그러다가 미국에 와서 처음에 심장학(cardiology)을 전공했다. 얼마 하더니 못 해먹겠다고 했다. 밤낮 시도 때도 없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못 견디겠다고 했다. 이점은 내가 이해할 수 있었다. 결국 방사선 종양학을 하며 여유 있게 잘 지내는 것 같았다.

내가 세인트루이스에서 레지던트를 할 때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왔었다. 네 아이들에게 동물 인형을 하나씩 사 왔는데 귀엽게 생긴 강아지 두 마리와 생쥐 두 마리였다. 우리 아이들이 그 동물 인형들을 어찌나 좋아했는지 이름까지 지어주고 때가 피죤하게 문도록 어른이 될 때까지 갖고 놀다가 끝내는 손주들에게까지 물려주었다.

그의 둘째 딸(Caroline)이 대학에 갈 때 나에게 몇 번 전화를 하고 우리 큰딸이 다니던 Amherst College에 대하여 자세히 물어보았다. 결국 Caroline도 Amherst College에 들어갔다. 그러나 Caroline은 예상치 않던 질환으로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났다. 그는 Caroline을 너무나 사랑했었고 그만큼 심리적 충격도 컸었던 것 같다.

그 후로 그는 동창회에도 안 나오고, 소식도 끊어져 모두 궁금해했다. 얼마전 가까스로 전화 통화가 되었다. 그는 스키를 좋아하여 유타주 에벤이란 곳에 작은 집을 사고 스키를 타러 다녔는데 아예 일찍 은퇴를 하고 그 집으로 이사 갔다고 했다. 주로 책을

읽고 지내고, 스키를 타고, 자전거를 타던가 걸어서 등산을 한다고 했다. 자기 있는 곳이 경치가 좋으니 와서 그림도 그리고 한잔하자고 했다. 얼마 후 그는 뉴질랜드로 트래킹 하러 가는데 혼자 간다고 하며 한 2주일간 소식 두절될 거라고 했다. 아마도 그는 세계의 오지 극지를 다니며 모험을 즐겼던 것 같다. 인간의 한계를 경험함으로써 만족감을 느꼈던것 같다.

천재는 범인에게는 기인으로 보일 수 있다. 그는 친구지만 내가 드물게 존경하는 사람들 중의 하나였다. 갑작스러운 그의 부음을 듣고 망연자실한 느낌이다. 아까운 사람은 죽지 않고 안갯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임낙중(59) 선배님의 글모음 제6집



임낙중 선배님은 1959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모교 병원에서 정형외과 수련을 끝내고 군의관 대위로 복무했다. 재대 후 의학박사를 받은 1967년에 도미했다. 미국에서 정형외과 수련 과정을 또 끝내야 했고 1972년부터 1999년까지 27년간 Maryland에서 전문의로 개업했다. 은퇴 후 2006년에 글 모음 제1권을 발행하기 시작하여, 2집 행복, 3집 인류의 운명, 4집 변명, 5집 삶의 목적을 발간했다.

이번에는 'See You Again Next Year'라는 제목으로 글모음 제6집(432쪽, 총 30 Chapters)을 Korean Maonitor를 통하여 발간했다.

시계탑에 가끔 올리신 임선배님의 글을 읽어보신 독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겠지만 이분의 글은 모두가 깊은 성찰의 결과이다. 올바른 안목과 많은 독서와 역사적 문헌에 대한 연구를 한 긴 인생을 사신 분만이 쓸 수 있는 귀한 글 들이다. 첫 Chapter에 나오는 총 68페이지에 달하는 '기독교와 불교의 비교'는 인간이 수 천년 갈등하는 종교 문제를 파헤친 역작의 논문이다. 또 56페이지에 달하는 'Donald Trump'라는 Chapter의 글은 세계가 직면한 국제정세와 미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한 민주시민의 솔직한 의견이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자신의 담백한 심정을 유모어를 곁들여서 용감하게 말한다. 이 책을 한창 읽다 보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Marcus Aurelius 로마 황제의 명상록이나 이탈리아의 외교관이자 정치철학자인 니콜로 마키아벨리 Niccolo Marchiuvelli의 군주론(The Prince)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을 독자에게 준다. 자신의 건강 문제나 가족 이야기를 저자들이 글에서 미화하거나 감추는 것이 보통인데 임 선배님은 거침없이 사실대로 서술했다. 가식이 없다. 용기가 있는 분이기에 때문이다.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정형외과 의사로 살아온 분이 이런 글을 썼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여행기, 친구들과 만나고 헤어지는 애환, 자신이 당면한 질병에 대한 자연스러운 설명이 들어있다. 종교적으로 이제 이분이 자신을 Chritian-Buddhist 혹은 Buddhist-Christian이라고 자칭하는 깊은 뜻을 나는 이해할 수 있다. 북핵 문제로 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는 '핵무기'라는 Chapter, 그리고 인생의 말년에 경험하는 'See You Again Next Year'같은 애환의 글을 임 선배님이 아니면 누가 또 쓸 수 있을까. 앞으로도 더 많은 주옥같은 글을 후배들에게 남기시기를 기원한다. 책이 필요하시면 nakkyung@gmail.com이나 우편으로 Dr. John M. Im, MD, 5321 Trevine Drive Haymarket, VA 20169으로 연락하시기 바란다. - 글 편집인 서윤석



인격장애 II Personality Disorder

부제: 당신은 정상입니까?

이 원 택(71, 남가주)

편집성 인격장애의 진단은 결국은 감별진단으로, 이때 편집성 경향을 보이는 분열성(schizoid), 분열형(schizotypal), 경계성(borderline) 또는 자기애성(narcissistic) 인격장애와 구별해야 하는데, 결국은 무엇이 우세한(predominant) 증상이냐로 판가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관적 장애인 편집성 정신분열병이나 피해형(persecutory) 망상장애 등과의 구별은, 인격장애에서는 뚜렷한 망상이나 환각 등이 없으며 현실 감각도 심하게 손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항정신병 치료약 pimozone(Orap)가 편집성향을 많이 약화시켰다는 보고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인격장애는 성장장애이기 때문에, 모든 다른 인격장애와 마찬가지로 편집성 인격장애의 주된 치료는 심리치료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감정장애나 불안장애가 겹쳐서 있지 않은 한, 제 발로 진료소를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고, 가정이나 직장 또는 이웃 간의 대인관계의 갈등 때문에, 타의적으로 오게 되는 경우가 많다.

아직까지 똑 부러지게 잘 듣는 정신요법은 없으나, 환자가 못 믿는 원인이 무엇이며 그로인해 파생되는 불이익을 차근차근 풀어가는 인지요법을 써볼 만하다. 이들은 대개 대인간 관계에서 너무나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저놈이 내게 말을 안 붙이는 것을 보니 분명히 나를 미워하고 있구나!” 하고 속단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 사람도 상대방이 먼저 말을 붙여 주기를 바랐는지도 모르지 않겠는가.

이리하여 숫자가 없는 이 이원택 박사는 만천하의 여성들한테 따돌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있나니, 현명한 여성 제위께서는 상대방 사정도 좀 참작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 저자의 생각으로는 이 편집성 인격장애자들도 하나같이 자신이 없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개가 다른 개를 잡아먹는(이전구투) 살벌한 세상에서, 자기방어책으로 남을 공격하는 저자같은 선량하고도 불쌍한 인간들이라고 본다. 이처럼 항상 남을 의심하고 사는 사람들은 가정이나 사회생활이 평탄할 수 없다. 그래서 외톨이 신세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대부분의 환자가 최소한도의 자기 앞가림은 하고 있다.

분열성(schizoid) 인격장애

진단기준에 따라서 그 숫자가 매우 다르나 이 분열성 인격장애의 유병률은 전체 인구의 약 3.5%에서 나타난다고 하며 1대 2로 여자보다 남자한테 더 많고 남자에서 여자보다 더 심한 증세가 나타난다고 한다.

분열성 인격장애의 원인은 별로 뚜렷하게 알려진 것이 없고, 유전적으로도 정신분열병(조현병)과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다만 물질적 기근이나 정서적 보양이 안 되었을 때 정서의 기근이 옴으로써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고 한다. 최근에는 망상체와 변연계 부위의 이상으로, 자율신경계의 부교감신경이 조절하는 adrenergic-cholinergic system의 균형이 깨져, 신경 자극이 산발적으로 흐트러져 버린다는, 소위 인지의 빗나감(cognitive slippage)으로 정서결핍이 온다고 하는 이상한 가설도 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냉담하여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고 인생살이의 희로애락을 초월했으며, 성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고 항상 혼자

서 하는 행위를 선호하는데, 칭찬이나 비난에도 매우 덤덤한 편이다. 한마디로 해탈한 사람들이다. 예를 들면 수년 전 한국 축구가 4강전까지 진출했을 때 많은 사람이 식당에 모여 TV를 시청했는데, 안정환이 승부골을 넣으니까 난리가 났었다. 이때 한쪽 구석에 있던 이원택 박사는 “미친놈들! 네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소화가 안 되겠다.”고 슬며시 자리를 피한 적도 있다. 소설에 나오는 인물로는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 중 네 번째인, 살인자 Smerdyakov가 이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감별진단으로 우선 회피성(avoidant) 인격장애를 들 수 있는데, 이 회피성 장애자들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칭찬 듣기를 갈망하나,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고, 분열성 장애자는 아예 초장부터 관심이 없는 것이다.

또한 분열형(schizotypal) 인격장애는 정감이 풍부하고 더 활동적이라는 것이 차이점이다. 정신분열병(조현병)의 병전증세나 음성증상, 잔류증상 등이 분열성 인격장애와 대동소이하나, 분열성 인격장애에서는 분열병같은 양성증상과 기복이 없고 또한 현실감을 유지한다는 것이 다르다.

분열성 인격장애의 기본 증세가 자폐증이나 Asperger 증후군과 유사한 것이 많은데, 저자가 모르긴 몰라도 분열성 인격장애의 원인이 주로 생물학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분열성 인격장애자들은 자신이 괴롭거나 고통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좀처럼 제 발로 걸어오는 경우는 없고, 대개는 답답하게 느낀 가족들이 코를 꿰어서 데려오는 수가 많은데, 이때는 가족들의 기대를 낮춰주고 너무 귀찮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하고, 본인이 원하면 심리극(psychodrama)이나 오락 치료(recreational therapy) 등을 통해 정서를 개발하고, 집단치료(group therapy)를 통해 효과적이고 편안한 방향으로 대인관계의 개선을 시도할 수 있다.

이처럼 항상 그늘만 찾아다니는 분열성 인격장애자들의 예후는 좋지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그렇다. 이런 사람들은 장사꾼은 결코 될 수 없고, 우체국에 야간에 근무하면서 혼자서 우편물을 분류하는 일은 별 탈 없이 잘 해낼 수 있다.

분열형(schizotypal) 인격장애

인구의 약 3%에서 이와 같은 성격장애가 나타나며 남자에 호발하고 정신과 외래환자의 상당수(최고 30%)를 차지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이 분열형 인격장애는 단순한 인격장애가 아니라 넓은 의미의 정신분열병(조현병) 장애군(schizophrenic spectrum disorder)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정신분열병(조현병) 환자 친척의 14.6%가 분열형 인격장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다. 또 한가지 유전적인 요소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 인격장애의 동시 발병률이 일란성 쌍둥이에서는 33%이지만 이란성 쌍둥이에서는 일반과 별차 없는 4%밖에 안 된다는 통계인데, 바꿔 말하면 정신분열병(조현병)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다형성(polymorphism)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인지학설로는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으로, 주의(attention)와 선택(selection)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온잘못된 지각(perception)으로, 사회적

상황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심리학적 병리는 주로 환상(fantasy)을 방어기제로 사용한다.

모든 인격장애가 다 정상 사람보다는 특이한 생각을 하고 행동거지도 괴이한데, 그중에서도 인지 지각의 왜곡이 심하고 전반적으로 기이한 행동이 나타나는 과짜 중에서도 진짜 과짜가 바로 분열형 인격장애자들이다.

이들은 소위 말하는 기인(odd ball)들로서 21세기에 종로통을 잦아 쓰고 다니거나 국회의사당에 긴 수염을 기르고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이들은 천리안, 텔레파시 또는 신이 내려왔다고 하기도 하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이 내려와서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한다. 겉으로는 이렇게 기고만장하나 따지고 보면 이들은 친구나 추종자도 별로 없고, 자기 자신의 무능력이나 남에 대한 불신감을 감추려고 자기 판에는 과대포장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선거에서 자기 가족밖에 찍어주는 사람이 없다.

제일 중요한 감별진단은 역시 정신분열병(조현병)인데 분열형 인격장애에서는 기능 와해나 급성기와 안정기 같은 기복이 없다는 점이다. 또한 경계성(borderline) 인격장애와 헷갈리기도 하는데, 분열형 인격장애에서는 인지나 지각적 왜곡이 더 지속적이며, 감정적인 반응과 별로 무관하기 때문에, 자신이 괴로워하지 않는다.

분열형 인격장애 중에 그 증세가 아주 심하거나 일시적 정신증 증세가 나타나면, 소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리튬(lithium)이나 기분안정제(mood stabilizer)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도 일종의 성장장애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치료방법은 역시 정신요법이다. 정신요법 중에서도 집단요법은 환자가 너무 특특 튀기 때문에 판 사람들이 참아주기 힘들므로, 결국은 개인요법을 써야 하는데 이때도 정신분석학적 요법은 부적당하고, 문제가 되는 행동에 중점을 둔 현실감각 향상이나, 남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지지요법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사회적 격리, 편집성향, 마술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 적응을 잘 못해서, 결국은 정신분열병(조현병)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20% 정도나 되며, 한 조사에 의하면 자살률도 10%나 된다고 하나, 많은 사람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들에게 잘 맞는 직업으로는 점쟁이, 운명철학자, 관상쟁이들이나 가끔, 국회의원이나 대학교수가 되기도 한다. 위대한 철학자 니체나 세르반테스의 소설에 나오는 돈키호테도 이 부류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겠다.

무대성(histrionic) 인격장애

무대성 인격장애의 발생빈도는 인구의 2~3%이며 젊은 성인에서는 남녀 비가 비슷하나, 중년기에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이것은 아마도 여성이 더 눈에 띄게 행동하고 또 의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유전적으로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신체화 장애와 관련이 있고, 생리적으로는 변연계와 망상계에 과민반응이 일어난다고 하나, 무대성 인격장애의 주 발병 원인은 심리적인 것이다.

프로이트 선생은 여성이 성적으로 좌절감을 가지면 자궁(hystero)이 발작하는 히스테리 증세가 나타난다고 보았는데, 그 후 거세게 불어닥친 여성운동의 여파로 hysterical이란 말 대신에 연기를 잘하는 배우(histrion)를 닮았다는 histrionic(무대성)으로 대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중에서도 조금 성숙한 환자는

해결되지 않은 오이디푸스적 갈등이 주원인이고, 더 미성숙한 환자는 구상기에서 애착과 분리를 제대로 못 넘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근본병리는 자신의 열등감때문에 극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해야만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줄 거라는, 자격지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본다.

이들이 주로 쓰는 방어기전은 억제(repression)와 해리인데 그 정의는 방어기제 편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런 유형의 성격장애자는 마치 무대에 선 배우같이, 화려한 의상을 걸치고 화장도 짙게하고 과장되고 인상적인 표현을 해서, 자기가 각광(spot light)을 받으려고 하는데, 감정에 깊이가 없고, 남들이나 주위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남자가 이런 성격장애가 있으면 금메끼를 한 골프채를 갖고 다니고, 노래방에 가서는 “돌아오라 소렌토로” 같은 가곡을 부른다. 만약에 여자가 이런 성격장애가 있으면 가슴이 노출된 야한 차림으로 와서 “선생님, 한번 안아주세요” 하는데 실제로 연애를 할 때는 냉랭히 얼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너무나 성을 상품화하느라고 속으로는 진이 빠져서일 것이다. 그러나 못 사내들이 오페라의 주인공 Carmen이나 춘희같은, 무대성 체질의 여자한테 오죽을 못 쓰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감별진단의 대상으로는 첫째, 자기애적 인격장애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남들의 “존경”을 원하지만, 무대성 인격장애자들은 “관심”을 받기를 원한다. 둘째, 경계성 인격장애는 “자기 파괴적”이나, 무대성 인격장애에서는 “자기 건설적(self-constructive)”이라는 점이고 셋째,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별로 남들의 영향을 안 받으나, 무대성 인격장애 때는 남들이 박수를 쳐주어야 직성이 풀린다. 넷째 무대성 인격장애도 감정의 기복이 심하므로 양극성 장애와 구별해야 하는데, 양극성 장애에서는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꽤 오래가는 편이지만, 무대성 인격장애에서는 그야말로 번덕이 죽 끓듯 한다. 그리고 신경성 식욕부진(anorexia-nervosa) 환자 중에 이 무대성 인격장애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나, 그들의 중요 관심은 “식욕”이고, 무대성 인격장애자의 주요 관심은 “성욕”이다.

프로이트는 둘 다 오이디푸스 갈등(Oedipus complex)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한 경우에 온다고 했다. 즉, 딸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본능이 어머니라는 현실에 가로막히고 또 임신이라는 복병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므로, 어머니보다 더 똥똥하게 되려는 신경성 거식증(bulimia nervosa)과 똥똥하게 배가 부른 것하고 임신을 동일시하는 일차적 사고방식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몸무게를 줄이려고 하는, 신경성 식욕부진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보았다.

무대성 인격장애에서는 엄마가 자기보다 더 성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아빠의 관심을 끌려면, 엄마보다 더 고혹적으로 보여야 하니까 그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세상만사를 다 성에다 결부시킨 프로이트 선생님께서 아직도 살아계신다면, 아마도 수많은 맹렬 여권운동가들이 그의 불안을 꺼려(castration) 달려들었을 것이다.

무대성 인격장애의 약물치료는 별 신통한 것이 없고, 우울증 증세가 심하면 MAOI를 쓴다는 보고도 있으나, 역시 주된 치료 방법은 심리요법이다. 집단치료에서는 비슷한 성향(homogenous)의 환자들을 모아놓고 지들끼리 누가 더 관심을 끌 수 있나 경쟁을 시키는 일이다. 처음에는 서로 지가 더 잘났다고 천방지축 기고만장들 하는데, 시간이 지날 <다음면에 계속>

Dutch Treat

이 회 백(61, 시애틀)



식당에서 회식을 하고는 서로 자기가 내겠다고 싸우는 우리로서는 “Dutch Treat”라는 문화는 이해를 하기가 힘이 들고 우리도 이 문화를 따르자고 누가 말한다면 “무슨 일빠진 소리냐, 그것은 웅졸한 화란 놈들이 하는 짓이지 아량이 큰 우리가 할 짓은 아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할 것이다. 그런데 식대를 서로 내겠다고 싸우는 우리의 전통(?)이 과연 옳은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

내가 대학교에 다닐 때에 경험한 일이다. 이렇게 금전에 욕심이 없고(?) 서로 동료들의 식비를 자기가 내겠다고 경쟁하는 우리들이 공동으로 하는 일에 돈을 걸어야 할 때면 사정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수학여행을 간다고 할 때 한 사람당 얼마를 걸어야 하는데 흔히 한 두 푼 차이로 격론을 벌인다. 의견이 분분해서 회의가 진행이 어렵고 결론을 내기가 힘들다. 즉 이런 공동행사에는 우리도 철저히 “Dutch Pay”를 적용하여야 좋을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의 행동의 원동력을 크게 둘로 나누어보면 하나는 생존을 위한 행동, 영어로 “Will to Live”와 권력을 차지하려는 “Will to Power”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 동물도 둘째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지만 “Will of Power”는 인간에게서 더 심하다. 배불리 먹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 남보다 우위에서 만족한다. 불란서 혁명가의 기치인 자유와 평등과 박애가 있는데 이 중에서 평등이 가장 중요하다. 평등이 없는 자유는 공염불이다. 그런데 “Will to Power”는 평등(Equality)과 상치된다. 이 때문에 인간은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 요즈음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가령 젊은이가 date로 식당에 갔을 때 으레 남자가 식사비를 “내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디서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스웨덴 여자는 “Lady First”하고 남자가 양보하려고 하면 “내가 그렇게 약해 보여?”하고 싫어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식대를 여자가 내겠다고 하면 남자는 “내가 그렇게 가난해 보여?”하고 불쾌하게 여길 지도 모르겠다. 즉 이런 사소한 일에도 “Will to Power”가 작용한다. 아량을 베푸는 사람의 지위는 상승하고 아량을 받은 사람의 지위는 하강한다. 식대를 가지고 싸우는 이유가 이것이다. 내가 위에 서야겠다는 싸움이고 내가 네 아래 들어갈 수 없다는 선언이다. 공동으로 내는 돈은 지위의 고하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서로 내겠다는 싸움은 없고 적게 내겠다는 싸움만이 있을 뿐이다. 흔히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 “No Free Lunch”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있다. 그러면 서도 우리는 항상 이것을 잊고 산다. 문제는 우리가 이 공짜라는 배경에는 누군가가 대신 지불하고 있고 그것을 지불하는 사람은 또 무의식적으로 반사적인 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엄밀히 말해서 이타주의(Altruism)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자선사업가(Philanthropist)가 “그 사람 참 훌륭해”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여기서 이미 보상을 받은 것이다. 이런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로 Mike Bloomberg가 있다. 나는 그를 훌륭한 사람으로 여긴다.

그는 뉴욕시장을 무보수로 12년간이나 봉사했고 자선사업도 많이 했다. 내 기억으로는 그가 Johns Hopkins 대학에 1.7 Billion Dollar를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금은 미국을 위해서 일해 보겠다고 대통령선거자금으로 몇백 Million Dollar를 아끼지 않고 내던지고 있다. 나는 그의 선량한 의도를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평등(Equality)의 원칙에 배치되기 때문에 막대한 자기 돈을 써가면서 하는 그의 선거운동에 박수를 보내지 않는다. 평등하기 위해서는 힘이 평등해야 하며 힘이 평등하려면 소수나 개인이 아닌 다수가 그의 선거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수많은 교회에서의 싸움, 한인들 회합의 싸움, 여러 종류 회합의 싸움을 본다. 한결같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겠다는 그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단체들이 대개는 소수의 “기부”나 정부의 지원하에 세워지고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결과로 Power의 층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난다. 다들 자기가 부당한 낮은 층의 대접을 받는다고 불평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시정되려면 층이 없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비용을 동등하게 부담하여야 한다. 즉 “Equal Power”는 “Equal Pay”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야만 “Power Struggle”도 없어질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오직 이상일 뿐이다. 우리는 이상이 아닌 현실에 살고 있다. 그리고 이 두 상황에서 오고 가며 살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한 우리는 현실을 약간 초월하여 이상 쪽을 향해서 가야 하지 않을까? 특히 우리나라의 지도급이라고 자처하는 서울대 동창들이라?

그러니 우리도 “Dutch Pay” 또는 “Going Dutch”를 시도해보자. 전체 동창들이 회비를 납부하는 것을 첫걸음으로 해서.



호떡 장수와의 시비

김 명 원(68, 남가주)



새벽에 사우나를 마치고 나오다가 골목에서 산 1000원짜리 호떡이 새벽 공기처럼 싸늘했다.

좀 뜨끈한 거 없냐고 물었더니 아주머니가 이 호떡은 차게 먹는 거란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음식을 뜨겁게 먹어야지. 좀 따뜻한 걸로 주세요요”

“다 마찬가지로요. 금방 만든 거예요.”

“금방 만들긴... 그러지 말고... 그럼 하나 새로 만들어 주세요요” 했더니 아마도 아주머니의 서방인 것 같은 사내가 화덕 뒤에 앉아 신문을 읽다 말고 “이건 기름에 지지는 호떡 하구 틀려요” 한다.

미친한 호떡 세계에도 엄연한 품계가 있으며 자기는 양반 호떡만 취급하는 사람이라는 우월감이 완연했다.

양반 호떡을 먹어 보지 못했으면 국으로 가만히 받아먹거나 하라는 이야기인 거다.

실제로 길거리에서 파는 호떡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제일 흔한 것은 찹쌀과 밀가루 반죽에 설탕 속을 넣은 것을 그냥 기름을 두른 철판에 놓고 누름 판으로 꼭 눌러 지져 익히는 것, 또 하나는 기름이 흥건한 철판 위에서 튀기는 것, 세 번째는 무쇠로 주조된 호떡 판에 구워내는 내가 방금 산 ‘버블 호떡’이다.

맛이 있기는 철판에 꼭 눌러 익히는 지진 호떡이 제일 맛이 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은 그냥 덩석 베어 물었다가는 호떡 속의 용암 같이 뜨거운 꿀물이 흘러나와 입속을 흘러당 데이가 십삼인 거다.

입술이 데이지 않게 조심해서 한 입 베어 물어 혀바닥 위에서 요리조리 굴러가며 “후후 헉헉” 들숨 날숨으로 충분히 식혀서 쫄쫄 씹어 꿀떡 삼킬 때의 그 맛이란다...

하지만 내가 지진 호떡을 사 먹으려고만 하면 아내는 내 팔을 나꿔챈다. 기름에 지진 것보다는 기름기 없는 버블 호떡을 먹으라는 거다. 물론 건강상의 이유다.

문제는 버블 호떡 장수는 지진 호떡 장수처럼 그리 흔히 눈에 띄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버블 호떡 장사를 시작하려면 무쇠로 된 호떡 판을 구비해야 할 테니까 아무래도 다른 호떡 장사보다 창업 자본이 더 들어가서 그런지 버블 호떡을 파는 곳은 점점 보기가 힘들어진다. 몇 년 전에 방한했을 때만 해도

내가 자주 지나다니는 인근에서는 남대문 시장 한복판, 인사동 버스 정류장 못미처의 벵어리 부부, 롯데 백화점과 청계천 중간쯤 등 몇 군데에 버블 호떡 장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나마 다 없어지고 남대문 시장 한군데만 남아있었다.

호떡상(商)의 세계에서도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이 어김없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아침 우연찮게 그 귀한 버블 호떡 장수를 맞닥뜨렸으니 여간 반가운 게 아니었는데 두 양주가 이렇게 뺨뺨하게 나올 줄이야.

내가 낸 1000원짜리 지폐는 이미 아주머니 전대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버렸고 아주머니는 등을 돌린 채 판청을 부리며 나오는 더 대꾸할 기미가 안 보였다.

사내도 어느새 신문 뒤로 숨어서 다시 말을 걸어 볼 처지가 아니었고.

말 상대를 잃고 무참히 서있는 내 꼴을 보고 손에 들린 호떡까지도 ‘나두 모르겠시다’ 하는 모양새다.

그냥 가려다 말고, “새루 안 만들어 주려면 돈 도루 주세요요!” 호떡을 카운터 위에 내려놓으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등을 돌렸던 아주머니가 돌아서서 뚱하니 쳐다보더니

“아니..., 한참 걸릴 텐데, 그럼 기다리실래요?”

사내도 그제야 넋데넋한 얼굴을 신문 바깥으로 빼죽 내민다.

“기다리는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얼른 새루 하나 만들어 주세요요”

진작 좋은 말로 할 때 그러실 것이지 꼭 이렇게 매를 들어야만 말을 들으실까. 시들은 푸성귀가 다 팔려야 싱싱한 것을 내어 놓는 채소 장사같이.

이 두 양주도 식은 것들을 다 팔고 나서야 새 걸 굽겠다는 심보가 뻐한데,

뫼이랴? 이 호떡은 차게 먹는 거라고?

누굴 봉이 김 선달한테 쉰 팔죽 사먹은 촌놈으로 아냐?

비록 길 바닥에 나앉아 하찮은 호떡이나 팔아먹을망정 말은 바로 해야지...

고국 땅에서건 물 건너 나성 코리아 타운에서건 호떡 장수만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희대의 호떡광(狂)을 몰라 보다니.

새로 구운 뜨끈한 호떡을 받아 들자 두 양주가 잘 볼 수 있게서 리 그 앞에서 한 입 베어 물었다.

버블 호떡은 걸 보기에 기름이 번들거리는 지진 호떡보다는 덜 뜨거울 것 같지만 속은 똑같은 용암 덩어리라 설탕 베어 물었다가는 지진 것보다 더 잘 입을 데인다는 것쯤을 이 몸이 모를 리가 없다.

두 양주가 쳐다보다가 “호떡의 달인을 몰라보았나이다” 하고 넋죽 앞드려 빌고 싶게끔 벌렸다 오므렸다 요상 망측한 입 모양을 과장 연출해가며 뜨거운 버블 호떡 먹는 법을 즉석 시범해 보였다.

<전면에서 계속> 록 상대방의 하는 짓거리가 “밥맛이나 소름(닭살)”이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아, 나도 이래서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 는구나” 하고 다른 환자를 거울로 삼아 자기 행동을 수정해 나가는 방법이다. 반면에 개인적인 심리치료는 역시 역동(dynamic) 심리치료에 기초를 두고, 환자와 의사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을 차근차근 해결함으로써, 환자의 진심이 무엇이며 환자가 무엇을 바라는가를 일깨워 주는 동시에, 그것을 극화시키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표현할 때 더 성과를 거둔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무대성 인격장애의 예후는 상당히 좋은 편이다. 치료를 받건 안받건 철이 들면서 만사가 시들해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나이가 들면 젊잖아 지는데, 말 많고 탈 많은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그러나 저자가 보기에는 선정적이고 도발적이었던, 즉 알로 까져서 광광 튀기던 그때 그 시절이 더 바람직했던 것 같다. 평생 단 한 권의 소설을 써서 폐든을 번 Margaret Mitchell의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오는 여주인공 Scarlett O'Hara가 바로 이와 같은 무대성 인격성향(trait)이 농후했던 여자이다.

자기에성(narcissistic) 인격장애

평생유병률은 인구의 1% 정도이며 3:2 정도로 남자에 더 많고, 남자를 선호하는 사회에서는 외아들이나 장남에서 더 많은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핵가족화 또는 개인주의 문화로 인해 발병률이 점차 증가한다고도 한다.

이 자기에성 인격장애의 원인은 다분히 심리적인 것으로 부모가 자식의 성취를 잘 알아주지 못했을 때, 반대로 부모가 자식의 조그마한 성취에도 호들갑을 떨거나 동네방네 다 자랑하는 경우, 즉 자식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나 과도한 무관심이 모두 다 원인

이 된다니, 요즈음 애들의 부모 노릇하기 힘들어서 시집·장가 안 간다는 말도 일리가 있다.

이때 쓰는 방어기전은 아주 미성숙한 왜곡(distortion)과 역시 미성숙한 내면화(internalization)로써, 이 이원택 박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학교에 교감으로 계시던 아버님 백으로 반장에 지명이 되었는데, 이것을 마치 무슨 천재라도 난 것처럼 동네 입구에 현수막을 쳐 놓고 “신동 탄생”이라고 야단법석을 치면, 그 어린 마음에도 나는 특별한 사람이니 모두가 나를 특별하게 대해주어야 한다는, 오만하고 건방진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폭우가 쏟아졌다. 천둥번개가 요란 하더니 한여름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타타닥 빗발이 내려쳤다. 아침 9시경에 도착하던 최용목 할아버지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전화를 해서 물었다. “아직 오시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 어디쯤에 계십니까?”

“네, 지금 거의 도착했습니다, 박사님.”

소나기가 시원하게 지나간 후 그가 문 앞에 뺨을 대고 차에서 내렸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66번 고속도로에 비가 쏟아져서 이렇게 늦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러면 같이 지하실로 가실까요? 잔디밭을 돌아서 직접 오시지요.” 했다.

지난 번에 그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 무척 무거웠던 생각이 났다. 특히 용접하는데 쓰는 가스탱크는 두 개였는데 정말 무거웠다. 이런 장비를 들고 다니는 그를 볼 때 대단히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도 나는 그런 장비를 쉽게 옮길 수 있게 미리 바퀴가 달린 카트를 준비했다.

“지난 번에 저 탱크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카트를 준비했는데요.”

“아닙니다. 오늘은 작은 가스탱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물건들을 홈디포에서 더 사가지고 왔지요. 그러면 지하실로 가서 파이프를 조사해 봅시다.”

우리는 같이 뒷문을 통해서 지하실로 내려갔다. 수개월 전부터 더운물 히터 윗부분에 녹이 슬어서 붉고 흰 덩어리가 섞인 크러스트가 쌓였다. 그것을 큰 딸이 오랜만에 집에 왔다가 발견한 후 이렇게 골치 아픈 일이 시작된 것이다. 언제부터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틈이 생긴 구리 파이프에서 한 방울씩 물이 떨어지는 것이다. 급한 일은 아니라 빈 통으로 그 물을 받으면서 당분간 지내고 있었다. 열흘 전에 최씨 할아버지가 한 번 손을 보았지만 완전히 고치지를 못해서 아직도 전과 마찬가지로 물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그를 오라고 한 것이다.

최씨 할아버지는 1933년에 태어나만 86세이다. 대한민국 공군 대위 출신으로 나이에 비하여 참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나와는 약 9년 전부터 에어컨에 말썽이 생겼을 때 잘 고쳐주어서 인연을 맺고 알게 된 사람이었다. 그는 6.25 당시 평양 제2 고등학교 학생이었다. 기독교를 허락하지 않는 김일성 정권을 그는 싫어했다. 같은 교회에 다니던 신자 중에 공산당의 밀고자가 있어서 그들한테 잡혔다가 몰래 탈출하여 남으로 내려온 기독교인이다. 산속에 숨어있다가 북진으로 평양에 유엔군이 올라왔을 때 살아났고 중공군 개입으로 생긴 일사후퇴 때에는 반공 청년 친구들과 여러 명과 같이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내려왔던 것이다. 황해도 해주를 거쳐서 배로 월남한 사람이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가 목격한 틈틈이 들려주는 서로 죽고 죽이던 동족상잔同族相殘의 슬픈 이야기는 손에 땀을 쥐게 했다. 6.25 남침을 준비하던 북한 정권 아래서 군사훈련을 받았던 학생 시절, 피난 생활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공군 사병으로 복무하다가 특무상사가 되기까지, 그 후 공군본부에서 일하다가 주위의 권고로 장교시험을 보고 장교가 된 이런 그의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산 역사이다. 공군 복무 중 1963년 텍사스에 와서 군인으로서 기술 교육을 받게 되어 8개월간 미국 구경도 했다. 그 후 다시 한국으로 복귀하여 나머지 3년 복무하면서 월남전에도 2년 6개월 복무한 기술 계통의 장교 출신이다. 한 가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늘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인도로 1967년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이주하여 살게 된 것이다. 젊었을 때에는 목회자가 되고 싶었지만 배우고 숙달된 에어컨 전문가 장교로 월남전에도 참여했고 그 기술 덕택으로 미국에 와서도 지난 50여년을 살아온 사람이다. 슬하에 딸 한 명이 이 근처에 살고 있으며 여섯 살 아래 부인은 군인시절 상관의 조카인데 그의 소개를 받아서 결혼하게 된 것이었다. 건강하던 그가 작년 겨울 어두운 밤에 계단으로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목과 머리를



노병은 죽지 않는다

서윤 석(68, 버지니아)

다쳤다. 장기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요즈음은 많이 회복되어 다시 쉬운 일만 하고 있었다.

우리는 히팅 물탱크 앞에 서서 일을 시작했다.

“어떻습니까? 이대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틈에서 물이 새어나오니 이 부분만 납땜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박사님, 그것은 안 됩니다. 물기가 있으면 절대로 납 용접이 되지를 않아요. 이 부분을 다 바꿔야 합니다. 제가 오는 길에 홈디포에 들러서 필요한 것들을 다 사가지고 왔습니다. 걱정 마세요.”라고 말했다.

“그렇군요. 그러면 위층에 있는 수도꼭지를 열까요?”라고 물어봤다.

“네? 아 네 그렇게 하시지요. 아래 수도관은 제가 잠글 터이니까 올라가셔서 수도꼭지를 몇 개만 열어주세요.” 했다.

그는 나이 때문인지 귀가 잘 안 들려서 소동이 잘 안됐다. 보청기를 깜박 잊어버리고 착용을 안 했다고 했다. 그래도 눈치로 대강 통하기는 하는데 납땜을 할 때면 손은 안 떨지만 시력이 나빠서인지 뜨거운 납을 여기 저기 흘리면서 적당히 맞추는 것이었다. 사다리를 놓고 세 개 내지 네 개 사다리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보기에 늘 아슬아슬하여 나는 그가 넘어질지도 모른다고 유사시에는 잡아줄 준비를 하고 옆에서 늘 지켜보고 있었다. <좀 젊은 사람을 불렀어야 하는데..> 하면서 후회도 했지만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을 생각하며 마지막으 로 한 번 더 이 할아버지를 다시 불러온 것이었다. 파이프를 자르는 손목으로 돌리는 톱으로 구리관을 자르고 새로 사가지고 온 엘보 두 개를 연결하면서 직경 3/4인치 구리 파이프를 새로 연결했다. 이 작업에 2시간쯤 걸렸다. 그가 하는 과정을 면밀히 살피면서 나도 그를 도왔다. 꼼꼼하게 샌드 페이퍼로 녹을 문지르면서 가지고 온 글루를 바르고 성공적으로 잘 연결했다고 좋아했다. 물론 작업 전에 전체 수원을 차단하고 히터의 장치를 끄고 파이프의 물기를 잘 닦았다. 탱크에서 필요한 물을 빼고 탱크의 위쪽에 30퍼센트가량만 물이 없으면 된다고 하면서 원칙대로 작업을 한 것이다.

“오케이!” 하면서 가끔 자신을 확실히 했다.

모든 것을 마무리한 후 그가 사다리에서 내려왔다. 심지어 납땜을 할 때는 나한테 반대쪽을 해 보라고 하길래 나도 기술자처럼 했다. 둘둘 말린 납줄의 실패에서 조금씩 돌러가면서 납질을 뽑고 필요하다는 접합부위를 세밀히 때웠다. 특히 그룹의 아랫

부분에 신경을 써서 했다.

드디어 3시간 후 우리는 이제 다시 수도물을 틀어 보아야 할 단계가 되었다.

“최 장로님, 이제 자신이 있으세요? 또 새지 않을 가요?” 하며 물었다.

“박사님 저는 이번에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내래... 때로는 이런 때 하나님한테 기도도 하지요. 하하..” 하며 자신이 있는 태도로 대답했다.

나도 같이 웃었다. 그리고 그가 시키는 대로 아래층의 수도관을 열고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수도꼭지에

서 방귀 같은 소리를 내며 붉은 쇳물이 쏟아져 나왔다. 충분히 흘러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잠그고 <아, 이래저래 2주에 걸쳐서 신경을 써온 문제가 드디어 해결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며 다시 지하실로 내려왔다. 우리가 조심스러운 눈으로 작업을 끝낸 파이프를 올려다보고 있는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이었다. 갑자기 구리관과 흰 플라스틱 파이프가 연결된 부분에서 물살이 길게 솟구치며 사방 팔방을 적시는 것이 아닌가. 철철 흘러내리는 물은 순식간에 바닥으로 홍수처럼 퍼졌다. 나는 이것 큰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나서 자동적으로 열어 놓았던 주 수도관의 밸브를 구십도로 돌려서 잠갔다. 결국 우리는 또다시 실패한 것이다. 날씨가 무덥고 축축했다. 우리는 배도 고프고 피곤했다. 내가 이러니 이 할아버지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벌써 오후 한 시 반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 노란 글씨가 적힌 특수 글루가 있다면 할아버지는 그것을 사러 가야겠다고 말했다.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았다. 그러면 왜 처음부터 그런 글루를 사가지고 오지 않았단 말인가 하며 나는 따지고 싶었다. 위층에서 빨리 고쳐지기를 기다리는 아내는 하루 종일 물도 못 쓰고 TV에서 웬만한 테니스 게임만 보다가 답답한지 위층에서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다가 시끄러운 모터 소리가 나는 청소기를 돌리는 것이다. 그것은 신경질이 나면 흔히 하는 아내의 습관이다.

이왕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이전 찬물도 쓸 수 없었다. 차라리 그대로 전처럼 몇 방울 물이 떨어지던 것을 그냥 받아 가며 그런대로 살 것을 그랬구나 하는 생각도 해 보는 것이다. 그러다가 소리를 치며 말했다

“할아버지! 그러면 저와 같이 로오 Lowe로 가서 그 글루를 사러 가시지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박사님, 참 이상한데.” 하며 대답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상점으로 갔다. 나는 지난 9년 이상 그를 보아 오면서 느끼고 있지만 오늘도 이 할아버지의 진실성을 의심한 적은 없었다. 다만 판단력과 기술이 부족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 힘들지는 않은 어떤 해결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는 그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았다. 그래도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인내심을 발휘했다. 은퇴를 하기 전에 이비인후과 의사로 일했을 때 밤에 코피가 심하게 나던 환자를 밤새도록 돌보면서 고생하던 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났다. 붉은 핏줄이 콧구멍으로 쏟아지며 치

료를 해도 재발해서 수없이 병원 문을 들락거리던 때가 생각나는 것이다. 그렇지 아, 그 새벽에 병원 주차장에 도착해서 환자의 피가 멈추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던 것도 생각났다. 모두들 잠이 든 그런 한밤중에 나는 환자의 콧속으로 바세린 거즈를 아프게 밀어 넣었던 때를 생각했다. 너무 아파하는 환자들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나는 최장로님을 향해서 부처님 같이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이제 점심때도 되었으니 그만 햄버거라도 잡수시겠어요? 괜찮겠지요?” 하며 물었다.

“네 그럼요.”라고 그가 대답했다.

우리는 로오Lowe 상점 근처에 있는 버거킹에 가서 햄버거 세 개와 함께 마실 스프라이트 두 컵을 샀다. 하나는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 뒤편이다. 차 속에서 식사를 하면서 나는 다시 화제를 돌렸다.

“피곤하시지요? 그런데 옛날 미국에 와서 8개월간 공군 장교로 교육을 받으러 오셨을 때 사귀셨다는 그 서양 여자와는 어떻게 헤어지셨습니까?” 하며 넌지시 물었다.

그는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면서 고백 같은 말을 했다.

“아니지요. 저의 집사람도 잘 아는 사실이지만 저는 그때 약혼반지까지 주고받고 했었지요. 다만 서로의 약속이 2년까지 다시 만날 약속을 기다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군대에 얽매어 있었던 관계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도 2년 반쯤 지난 후부터는 저를 포기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후 연락이 끊어진 것이지요. 젊었을 때 있었던 부끄러운 일이지요. 같이 살다시피 했었는데, 그 후 그녀는 더 공부를 해서 미시간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결혼은 안 한 것 같아요. 아직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라고 말했다.

“혹시 아이는 없었나요?”

“없었어요.”

“아 그랬군요. 아름다운 추억이시군요. 그런데 그렇게 평생 독실한 기독교인이시라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하여 일어난 것 같군요. 할아버지께서는 혹시 천당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며 물었다.

“박사님 제가 작년에 계단에서 굴러서 머리와 목뼈를 다쳤을 때 말입니다.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일주일이나 있었는데 그때 저는 꿈을 꾸었어요.”

“어떤 꿈을 말씀인가요?”

“네, 제가 어떤 낯선 큰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이 아우성거리며 밀치면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멀리 앞에 황홀한 왕궁 같은 것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말입니다. 저는 기도를 했거든요. 서둘러 가고 싶지 않다고. 아직도 교회에서 맡은 일도 많이 남아 있고 아무리 천국이라도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며 주님 주님 하면서 외쳤어요. 얼마가 더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은은하게 울려오는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어요. 그 소리는 요즈음도 피곤한 날이면 왼쪽 머릿속이 뜨거워지면서 낮은 멜로디로 들리지요. 바로 그 무렵에 군중들 머리 위로 환한 불이 쬐어진 커다란 십자가가 갑자기 제 앞에 다가오는 것이었어요. 그때가 집사람과 딸아이가 병상에 누워있는 저의 손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만에 다시 의식이 회복된 순간이었지요. 감사의 눈물이 저절로 우리의 얼굴을 적셨답니다, 박사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제가경험한 사실입니다.”

그가 하는 이 말과 <다음면에 계속>



허선행(64, 대뉴욕)

세종 대왕께서도 꿈을 꾸셨을까? 생각해 보았다.

그분도 하나의 인간이셨기에 당연히 많은 꿈을 꾸셨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러나 우리같은 평민이 꾸는 꿈보다는 전혀 다른 경지의 꿈을 꾸셨을 것으로 생각도 해보았다.

매일 밤 주무시면서 훈민정음(은 국민이 읽고 말할 수 있는 글)의 글자 하나하나를 방문이나 창살의 무늬와의 연결 그리고 글자 하나하나의 발음을 꿈속에서 해결하셨을 지도 모른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나라 살림 및 신하들과의 관계 혹은 정치에 대한 꿈속에서의

낭만과 충돌 그리고 고통도 많으셨겠지요 이 외에도 무한히 많은 종류의 꿈을 꾸셨겠지만 특히 성군이면서 남성이셨기에 주위에 모여 있는 미모의 여인(처녀)들로 꿈 자리가 불편하시지나 않았을까도 상상해 보았다. 물론 그 당시에는 현대의 거대한 과제인 “#MeToo” 같은 문제는 양반이나 임금님이나 왕족에게는 전혀 상상도 못했고 해당도 안 되었을 것이니 이런 과제는 아예 꿈에도 없었을 것으로 확신한다.

나는 요새 꿈을 꾸기는 꾸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기억에서 사라지는데 기억나는 꿈은 어느 산중에서 절벽을 만나서 고공 공포증(acrophobia)으로 괴로워하면서 이쪽을 보아도 저쪽을 보아도 거기가 여기 같고 여기가 거기 같아서 해매다가 깨어나서 보니 다행히 살아 있었다.

꿈에 대한 연구도 많았고 저명한 소설도 많이 있었지만 나는 나대로 아직도 꿈같은 꿈(소망)이 궁금해졌다. 잘난 사람들은 아마도 국가적이고 사

회에 공헌하는 꿈을 꾸고 또 꾸어 현실로 이끌어 가길 바라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적인, 가족적인 아니면 사랑과 증오 아니면 질투 등등의 끝이 없는 꿈을 꾸다가 깨어날 것으로 또한 여겨진다. 예를 들어 흔히 여인들이 말하는 태몽이라든가 사춘기가 막 지난 남자아이들의 몽정 같은 것은 본인 만이 알고 있다가 친구나 친지에게 우선 상담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본다.

오늘 꿈에 대한 짧은 글(잡담 아닌 진담)을 쓰고 싶은 이유는 사실 세종 대왕께서도 미처 상상(꿈)도 못 하셨으리라 생각되는 우리 대한민국의 최근 역사적 사실(비극/국치)이다. 그분이 꼭 아셔야 할 것이 많지만 지하에 계신 세종 대왕님의 머리가 아프실까 봐 간단히 요약해서 적어 본다면, 특히 대왕님의 후손 왕들의 실정과 일제 36년은 꼭 알고 계셔야 할 역사적 사실이라고 한탄해 봅니다.

그 외에 미국(유엔)의 도움으로 일본 노예에서 해방은 됐지만 남과 북

으로 갈라진 두 개의 조선은 결국 1950년 6월 25일 민족 간의 피비린내 나는 참혹한 전쟁을 겪었습니다. 이 전쟁의 자세한 시작, 내용과 비극은 너무 참담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였던 대한민국(남한)의 경제 부흥의 시조인 박정희 대통령께서 1979년 10월 26일에 시해되었고 그 후로 여러 대통령들께서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분들의 성함까지는 모르셔도 되지 않을까 해서 안 알려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사실을 추가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2009년 5월 23일 자살을 하셨는데 너무 충격적이라 사실인지 아닌지도 지금껏 믿어지지 않습니다.

세종대왕님, 죄송합니다. 너무 이러한 비극적인 사실은 꿈도 꾸지 마시길 바랐지만 말씀드리게 되어서, 그리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많은 좋은 자랑스러운 소식만을 꿈꾸시게 하고 싶습니다.

<전면에서 계속> 내가 전에 죽어가던 환자를 소생시켰을 때 몇몇 환자들이 나한테 말하던 그들의 경험담과 유사한 점을 발견했다. <죽어가는 사람의 육신은 사망 후 썩거나 분해되어 사라지지만 그 물질적인 성분은 이 세상에 남아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물체를 형성하는데 사용된다는 이론이다. 사망 후에는 우리의 육신에 들어 있는 탄소, 질소, 산소 성분, 철분도 다 흙이나 공기나 생명체나 어딘지는 모르나 새로운 곳에 정착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내 환자들 중에는 자신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가는 것을 경험한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떠난 그들의 혼이 죽어가던 육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었다. 천국에 들어가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하는데 천국으로 가는 도중에 그가 돌아온 것인지? 최장로 할아버지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다.

“누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십자가에 매달렸던 날 옆의 죄수에게 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며 그에게 물었다.

“예 기억하지요. 아무리 나쁜 일을 했어도 회개를 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면, 즉 예수님을 통하게만 되면 천당에 가는 것이라고 성경에 써있지요.”라고 대답했다.

“그러면 수많은 중국 사람이나 신라시대에 살았던 착한 사람들 다 천국에 못 갔을까요?”

“그럼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으니 못 갔을 것 입니다.”라고 그가 대답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이해하기는 힘들었다. 그리고 나의 의견을 말했다.

“최 장로님, 저는 천국에도 등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신은 있었고 천국과 지옥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한 종교에서라기보다는 세상을 창조한 전지전능하신 한 분의 신(기독교, 모슬렘교, 동양철학의 창조주를 다 통합해서)이 오랜 옛날에도 있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때도 천국에 간 사람도 지옥에 떨어진 사람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는 그가 흘린 피로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함을 받았으니 사랑에 바탕을 둔 그의 말씀을 따르고 진실로 믿으면서 살다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행복해지는 영생의 생명을 얻는 천국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겠지요.”라고 나는 말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울 때나 소원이 있으면 늘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기복 신앙의

경지를 초월해야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점심을 먹으면서 로오Lowe에 들어가서 파이프를 주로 파는 자재 진열장에서 노란 글씨가 새겨진 글루를 골라서 샀다. 계산을 하고 집으로 서둘러 돌아왔다. 아내가 초조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마음에 걸렸다. 현장에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는 할아버지가 좀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았다. 지하실에 와서 그 작업한 곳을 한동안 둘러보더니 말했다.

“제가 이제 86세가 넘었습니다. 아내의 의견도 그렇고 저 자신이 차츰 하는 일에 자신이 없어졌어요. 젊었을 때는 적적 되던 그런 것들이 이젠 잘 안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래도 제가 잘 아는 짧은 전문가를 불러야겠어요. 조금 기다려 보세요.” 했다.

나는 나 자신을 돌아다보았다. 자신이 없었을 때는 환자의 이익을 위하여 동료들의 도움을 요청했던 생각도 났다. 그가 다른 기술자를 부른다고 하는 것에 동의했다. 진작에 그러기를 바랐는데 늦었긴 하지만 다행이었다. 여러 번 그런 의견을 말하려다가 못했던 이유는 혹시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것 같아서였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던 것이다. 우리 다 참으로 어리석었던 것이다. 지난주에 10시간 또 6시간 총 16시간을 낭비하고 우리는 진땀만 흘리고 있었던 것이다.

“네,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나는 웃으면서 빨리 전문가를 부르라고 했다.

잠시 후 그가 강씨라는 큰 교회에 나가는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기술자를 불렀다. 그리고 그가 이런 파이프 일에 전문가라고 했다. 앞으로도 그가 연말에 은퇴하면 자기의 고객을 그에게 소개해 주려고 한다고 했다. 쏟아지던 비가 멈추고 뜰과 뒷마당 숲이 맑게 세수를 했다. 나는 강씨가 오르면 한 시간은 기다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 할아버지를 안내하면서 뜰 아래 호숫가의 골프장 그린 위로 올라갔다. 할아버지는 아직도 집에서 일 에이커의 넓은 집 뜰의 잔디를 기계를 밀면서 손수 깎는다고 했다. 그 나이에 대단한 일이다. 그는 미국에서 50년을 살면서 골프장에는 처음 와 본다고 했다. 그린 위의 깃대를 뽑고 그 골프 볼이 들어가게 되는 컵의 구멍을 그에게 보여주었을 때,

“아! 어떻게 이런 고운 잔디를 만들었을까요.” 하며 감탄했다.

“장로님, 지상의 천당 같지요. 이 맑은 공기와 저 가지에 앉아있는 빨간 새들을 보세요.”

뽀속뽀속 신발에 잔디가 밟힌다. 비

가 방금 지나간 때문인지 골프장에는 골퍼들이 없어서 우리는 그곳에서 오르락내리락 산보를 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교회에서 요즈음 그가 선포하는 죄를 많이 지었다고 고민하는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다. 그는 원래 목사가 되고 싶었던 관계로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정신적 고뇌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고 했다. 이런 사람들을 선포하는 일이 그를 기쁘게 한다고 말할 때는 그의 두 눈에서 광채가 났다. 비록 귀가 잘 안 들리고 눈도 어둡고 치아가 모두 임플란트라고 하면서도 그의 하나님을 섬기는 의지만은 대단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큰 상을 주실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드디어 기다리던 50대 초반의 강씨가 나타났다. 현장 검증을 하면서 들고 온 장비가 담긴 바켓 두 개를 내려 놓더니 콧노래를 불렀다. 양 쪽 팔에 이두박근의 알통이 보였다. 우리에게 비하면 무척 젊은 사람이었다. <한창 때구만>하며 나는 생각했다.

“어떻게 오늘 고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물었다.

“그럼요, 지금 곧 고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자신이 있게 말했다.

우리는 그가 하는 과정을 눈여겨보았다. 우선 엘보가 두 번 꼬부라지는 것을 하나로 했다. 그리고 플라스틱이 연결된 곳에 하얀 밸브를 부착했다. 그리고 노란 글씨가 담긴 통의 글루를 사용했다. 납땀을 하는 가스통이 아주 가볍고 작은 것이다. 눈이 아주 잘 보이는지 솜씨 있게 모든 부위를 쉽게 세밀하게 끝냈다. 용접 중에도 납땀머리를 땅에 흘리지 않았다. 그리고 용접한 자리에 또 다른 우리가 잘 모르는 글루를 발랐다. 불과 20분도 안 걸린 것이다.

5분쯤 기다리더니, “이제 위에 올라가셔서 물을 틀어보시지요.” 라고 했다.

나는 그가 시키는 대로 위층으로 올라가 물을 틀었고 그는 지하실의 잠겼던 메인 수도관도 열었다. 수개월간 구리관에서 흘러내리던 물방울이 과연 멈출 것인가 하며 걱정이 되었지만 그가 시키는 대로 모든 수도꼭지를 열었다 닫았다. 이제 결과만이 남아있다. 나는 마음을 조이면서 다시 그들이 서있는 지하실로 내려왔다. 그리고 놀랐다. 할아버지와 내가 16시간에 걸쳐서 씨름을 하면서 진땀을 흘렸던 어려웠던 일을 이 강씨가 단 20분 만에 끝낸 것이다. 대 성공이다. 그리고 이 일이 여기서 잘 마무리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다. 나도 아내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씨 할아버지도 지친 것이었다. 젊은 강씨는 자기가 한 일이 무한정 보장된다고 장담하며

자기의 명함을 내민다. 최씨 할아버지가 금년 말이면 은퇴를 한다고 하니 까 필요하면 불러 달라는 뜻이 아니겠는가. 몸이 아팠던 환자가 명의를 만나서 힘든 수술을 잘 받고 완치된 상황이다. 그리고 나는 할아버지한테 그에게 줄 비용을 의논하니 그에게 직접 물어봐 달라고 했다.

“그러면 오늘 수고비가 얼마인가요? 재료값을 합해서,” 하며 물었다.

“3백 불 입니다.”

나는 또 깜짝 놀랐다. 아무리 배관공Plumber의 수리 비용이 비싸다고 해도 이것은 너무나 것 같았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얼마냐고 물어보았어야 했는데 하며 후회했다. 그러나 너무 상황이 급해서 응급으로 부른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울며 겨자 먹기로 그 금액을 주었다. 그리고 돈을 받고 떠나는 그를 쳐다보면서 나는 속으로 <당신은 기술은 좋을 지 모르지만 나의 마음에 드는 기술자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상황을 지켜 보던 최장로 할아버지가 한 마디를 했다.

“너무 값을 과하게 달라고 하네요. 그러면 저의 수고비는 이제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박사님.”하며 미안해한다.

선량한 사람이 하는 말이다. 그리고 그 태도가 나를 감동시켰다.

“그래도 이렇게 여러 날 수고하셨는데 휘발유값이라도 드려야지요.”하며 말했다.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이 할아버지가 이 나이에 그의 최선을 다한 것은 사실이다. 16시간 동안 마음 고생은 얼마나 많았겠는가. 그래도 조금 드려야지.> 하면서 수표를 끊어서 극구 사양하는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교회 연보로라도 내세요.” 하면서.

그리고 이제 금년 말부터는 은퇴하여 오직 교회 일에만 전념하면서 여생을 지내겠다는 그의 결정에 동의한다면서 그의 두 손을 꼭 잡아 주었다. 환자의 귀한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도 너무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둡고 귀가 안 들리고 판단력이 흐려져 자신들도 모르게 환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전에 적시에 은퇴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났다.

우리가 모든 일을 끝냈을 때 저녁 6시가 됐다. 하루 종일이 걸린 셈이다. 밖에는 또다시 소나기가 쏟아졌다. 지붕의 거터가 잘 통하는지 검은 아스팔트 위로 빗물이 홍수처럼 쏟아져 길가로 내려갔다. 우리의 일생도 저 물살처럼 순식간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서글픈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이 단편 소설은 창조문예(박이도 교수 전주간) 2020년 1월호에 발표함.

넋과의 실랑이

졸업 오십 주년 기념행사에 다녀와서



인천공항

“내릴 때쯤 되면 왜 울컥해지곤 하는고?” 아내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마눌님, 우리가 서울 다녀간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여직 이런 말씀 들어 본 일 없었던 거 같은데... 울컥이라니요, 무슨 뜻이오니까?”

“모르노라”

모른다니 무얼 모르는 거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는 애기가 혹은 아예 어떤 건지도 확실치 않다는 건가? 아아 아아 타향은 싫어 고향이 좋아로 간단히 환원될 수 있는 게 아닌 좀 아리까리한 감정이라는 건가? 하여간, 파리의 드골 공항이나 런던의 히드로 공항에 내릴 때 나오는 감정은 아닐 거라는 짐작은 어렵 뜻이나마 든다. 남의 나라 공항에 내리며 울컥하는 감정을 느낄 이유는 정말 없을 테니까. “모르노라”의 실체는 추궁하지 않기로 한다. 뭐 별 이유가 있어선 아니다. 냅두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서다. 감정이란 게 사건의 전모와는 달라 족친다고 분명해지는 건 아닐 테니까 하는 그럴듯한 생각은 나중에 들었다. “마눌님 혹 스스로 웃기고 있다는 생각은 아니시오니까? 연세가 몇이신데”도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듯 보여 발언을 자제하기로 했다.

사실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야 할 사람은 나다. 졸업 오십 주년 행사에 참석하는 건 나니까 아내가 아니라. 현대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밋밋해도 되는 건가 싶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무얼 살꼬 생각만 한다. 그 정도로 부서지고 망가졌다는 말인가. 고물상에도 못 내늘 정도로.

나라고 비슷한 경험이 전혀 없을 순 없다. 한국 떠난지 오년만에 빈 어머니, 내 떠날 때만 해도 까맣던 머리가 완전 백발이시다. 이거 사람 난처하게 구네. 눈물이란 놈. 고개를 돌려야만 했다. 흑- 느끼지 않은 것만 해도 여간 다행이었는지 몰랐다 년 대한의 남아야. 사내새끼가 찢찢거리긴!

그때나 지금이나 남아다운 남아 아니긴 마찬가지인데 예전엔 저절로 솟아 오르던 감정이 이젠 눈에 안 쾅다.

어머니 세상 떠나신지 오래다. 나를 난처하게 굴던 눈물의 기억도 떠난지 오래다. 지금 오십 주년 기념행사 차 귀국하며 도대체 어떤 기분이 들어야 하는지 감이 안 선다. 아내처럼 울컥하는 느낌은 좀 격하다. 적당한 표현이 생각 안 나서 울컥이라는 거 찰다 싶은 단어를 썼으리라 생각한다. 모름지기 고향에 갈 때 나는 감정은 좀 그럴듯한 뉘앙스여야 할 것 같다. 즉 더 다듬어진 표현이 요구된다. 그런 생각이 든다. 구글이라도 뒤져보나? 그대 “오십 주년 기념행사에 딱 들어맞는 열 가지 최적의 감정”을 클릭 그중 맘에 드는 놈을 넥타이 고르듯 골라 보란 듯이 차려입을까?

모교에, 모교에 돌아와도

포르말린 냄새를 기억한다. 흰 시트들을 기억한다. 거친 질감의 허연 시트에 씌워져 있던 스물 다섯 구의 카데버(시체)들을 기억한다. 엄숙하던 정적,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던 첫 한 시간을 기억한다. 카데버 오른쪽 아랫배의 피부를 가르던 첫 메스를 기억한다. 해부학 실습 첫 시간을 기억한다. 이제 의사가 되는 길로 가고 있구

김창남(69, 뉴저지)

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던가? 아니던가? 확실치 않다. 등등 나는 엄숙한 기분이 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왔건만 그 해부학 교실은 흔적이 없다. 우중충했다고 기억하는 교실 자리엔 산뜻한 건물이 새택처럼 들어서 있다. 별 불일 없어 보이는 나무 한 그루가 거추장스레 길 한가운데 서 있다. ‘왜 이런 길 여기다 심어 놨지 어울리지 않게 했더니’ 아니다. 이게 그 해부학 실험실 앞에 있던 느티나무 아닌가? 실습 중 튼튼이 나와 담배 한대 피우며 실없는 소리 나누던 느티나무. 이 나무는 해부학 교실과 한 덩어리였지 않나? 들을 때 생각할 수 없던 우리의 보리수(Lindenbaum)였다. 성문 앞 우물결이 아닌 의과대학 해부학 교실 앞에 서있던 느티나무, 우리가 그 그늘 아래 담배를 피우던, (이놈의 조직 어디 숨어서 안 나와!) 신경질 날 때나 지루할 때 근처에서 서성거리곤 했던 그 나무다. 우리는 이 느티나무와 서너 명의 흰까운 차림의 젊은이들 그리고 성기준 교수의 파이프가 그려내는 이미지를 우리의 기억 속에 입력시키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었다.

차마 없애지 못해, 마지못해 남겨둔 흔적이 역력하다. 비명횡사는 파했다. 하지만 몸통-해부학 교실-을 잃은 나무는 흠아비처럼 외롭구나.

어딘가 히포크라테스 동상이 나오겠지 했는데 지나치고 말았다. 없어진 않았었다. 대신 낯선 동상이 큰 길가 잘 보이는 곳에 도포자락 휘날리며 내 시야에 무단 침입하고 있다. 우리의 까마득한 선배님이시란다. 아무렴 우리 것을 찾아야지. 그렇고 말고, 퍼런 녹(銅)마저 미처 쓸지 못한 짧은 연륜, 완강한 구릿빛과 뒤의 흰 벽이 유난히 서로 뒹긴다. 그래 눈에 굵힌다 하며 트집을 잡는 건 점점 낯설어지는 모교의 풍광에 내가 투정을 부리는 것이리라.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러노 / 산쟁이 알을 품고 뼈꼭새 제철에 울건만 / 마음은 제고향 지니지 않고 머언 항구로 떠도는 구름 / 오늘도 메끝에 홀로 오르니 흰점꽃이 인정스레 웃고 /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나고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정지용 고향)

모교는 지용의 고향보다 한 술 더 뜬다. 예 보던 히포크라테스 동상은 어딘가 숨어 보이지 않고 사정없이 가지치기 당한 느티나무만 죄송하다는 듯 어색하게 자리하고 있다. 해부학 교실 본마누라 자리엔 새택이 들어서 있다. 오늘따라 구름도 눈에 띄지 않는다. 형체 없는 묵직한 것이 명치 부근에서 어른 거린다. 신체적인 증세로 전환된 모종의 감정, 공항에 내릴 때 부터 내내 어디 있나 고민하던 그 감정이란 건가보다. 휴- 인제 찾았나 보다.

계단강의실

계단강의실이 없어졌다는 건 이미 들어 알고 있었다.

하나, 막상 그 부재를 확인하고 보니 이걸 아는데 하는 생각이 거칠게 밀치며 들어선다. 뭐가 아니라는 거야? 뭐가 아닌 건진 모르겠지만 하여간 아니다. “웬지 한곳이 비어있는 내 해에~ 가슴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최백호) 내가슴인지 어께 쪽인지 허리겐 지 어딘가 허전한 느낌, 그래, 이 상실은 마음보다 몸으로(visceral) 느껴진다.

시계탑 앞에서 단체사진을 찍는다. 계단강의실 생각에 시계탑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시계탑은 그저 쳐다보며 지나치던 거였지 우리의 일부는 아니었다. 계단강의실은 다르다. 우리의 일부였다. 초라하던, 남루하던, 불편하기 짝이 없던, 우리 강의실, 그렇다 “우리”의 강의실이였다. 허물없는 사이였던, 모욕과 학대를 너끈히 감내하던. 누군가 싱크에 오줌도 싸던, 자취하던 동기들이 남은 김치 국물을 싱크에 들어부어 거룩한 냄새가 강의실 그득 섭리처럼 충만하기도 하던, 강의시간에 길게 누워 드르렁 드르렁 코도 골수 있던. 그래도 보이지 않던, 그 옆의 창문으로 나가 옆 빌딩 옥상에서 마이트(카드) 게임도 하던. 한용철 교수라도 나타나면 황급히 카드를 감추던. 상황이 종료되면 큰 위기를 겪어 낸 전우라도 된 듯이 공범의 눈짓을 보내며 깔깔대던,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젊음으로 눈부시게 빛나던!

계단강의실은 사라졌다. 흔적 없이 이 세상을 떠났다. 종부성사도 없이 왕생을 비는 스님의 목탁소리도 없이 존재의 저편으로 밀려났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의 기억 속에서까지 말살시킬 수 있단 말인가. 햄릿의 부왕처럼 살아있는 시체로 술 한 잔 생각나는 오후면 어슬렁 어슬렁 우리를 꾸짖으러 나타나리라. 도대체 너희들은 어디 있었느냐? 혼이라도 불러보자. 그래 씻김굿이라도 지내드려야지? 우리 마음속의 그를 위한 묘비명엔 버나드 쇼를 표절하는 게 딱이겠다. “어영부영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야 뭐하느라고 꾸물거려 빨리와! 넋 나갔어?” 나갔던 내 넋 나귀쥔다. 울레줄레 일행은 벌써 먼발치다.

점심

모교는 발전했다. 본관은 하늘로 호기롭게 치솟았고 소아 병원이며 원자력 병원 등 부대 건물들도 당당하다. 시설은 첨단이다. 각종 논문들은 국제지에 실린다. 로비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오르락내리락한다. 더 이상 초라하지 않다. 나는 뿌듯하다.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제가 오십 년전에 이 학교에 다녔답니다 하고 자랑이라도 하고 싶어진다. 없어진 계단강의실에서 정점을 이루었던 내 감상(感傷)은 자랑스러움으로 덧씌워진다. 만일 지금 후배들이 아직 그 남루하던 계단강의실에서 강의를 듣고 있다면 소름 끼칠 노릇일 거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한 가지 궁금하다. 오십 년 후에 그들이 이 학교를 우리처럼 노인이 되어 방문한다면 그들의 “웬지 한구석이 비어있는 가슴에, 잃어버린 것, 다시 못 올 것”으로 기억되는 건 무얼까? 그들의 눈부시게 빛나던 기억은 무얼까? 병원장이 와서 깎듯하게 인사를 한다. 19년 후배다. 상냥하다. 점심 식사 맛있게 드십시오. 식당에서 뻥히 내려다보이는 창덕궁의 조감(鳥瞰)이 끝내준다

하며 다시 빠져나가려는 내 넋 다잡는다. 너 이놈 어딜 나갈라구 그래!

만찬

동기들이 만나 저녁을 먹는다. 실로 오십 년 만에 보는 동기들도 있다. 그저 반갑다. 반갑고 반갑다. 어찌 설명을 못하겠다.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면 그럴듯 하게 틀리리라. 고자한테 오르가즘을 암만 설명하든 어찌 이해하리오. 오십 년이란 공백이 없이는 이 반가움, 이 오르가즘 불가능한 거다. 매장되어 사라져 버린 지 오랜 걸로 여기던 우리의 젊었던 시절이 화악 살아 다가오는 이 신기함.

여행

우리는 간단하게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감행했고 성공했다. 우리의 우주선은 시간을 거슬러 가는 데에 아무런 저항도 느끼지 않았다. 오락도, 태종대, 천마총, 안압지, 병산, 도산서원을 리무진버스로 누빈 게 아니라 오십 년전 서울 하늘을 날았다. 감상적이 꽤도 괜찮다는 면허라도 받은 듯이 몽롱한 과거를 허우적거리며 되살렸다. 급전(急轉)과 비약을 자유자재로 반복했다. 무교동에선 막걸리를 청진동에선 술뚜껑에서 지글거리는 빈대떡을 먹었다. 진아촌에선 여덟 나한들이 싸구려 빼갈에 안주는 탕수육 딱 한 그릇. 그것마저 누군가 시계를 맡겼어야 했는가? 확립다방의 담배연기, 최루탄을 피해 도망가던 원남동 어느 막다른 골목이었다. 함(函) 저 갈취한/빠졌이 번 돈으로 어느 여관 방안가로 내 몸이 이동되었을 때 역병으로 취해 일도 못 치르던 밤 섬세하던 밤 여인의 손길이었다. 오십 년 전 공범이 잔을 치켜든다. 우리 웃기지? 하는 미소를 머금은 채.

금지과 규제와 그물망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 건 몇 잔의 술만은 아니었다. 불쑥 찾아온 우리의 과거였다. 신기하다. 시간은 흐르는 게 아니라 그저 떠도는 거로구나. 그러다 때맞춰 나타나는 거로구나. 생생하게 현현한 오십 년 전 과거 - 우리는 고래고래 고향질렀고 씨떡지 않은 소리 하면서 인생의 진리를 갈파한 듯 의기충천하던 오십 년 전으로 돌아갔다. 누군가 돌아서서 벽에다 오줌이라도 질질 걸었다면 금상첨화였을 텐데 그 정도의 “싸나이 다운,” 술김에라도 그놈의 를 이란거 한 번쯤 저만치 집어 패대기쳐 버릴 수 있는 그런 시원한 싸나이는 없었다. 아냐 그런 객기는 이젠 너머 섰다는 얘기겠지? 평생, 규칙 고분고분하게 따르며 살아온 불쌍한/대견한 동기들! 쾅대신 닭이라고 쏘맥에 와인을 들어보는 것 -쏘맥에 붓는게 고작 와인이야? 오줌을 타야지! -으로 우리의 저항을 대신했다.

즉 우리는 한사코 달아나려는 넋과 계속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던 거다. 마치 지난 오십 년 동안 감혀있었다는 듯이 때를 쓰는 넋이란 철부지와.

다시 공항

이별의 부산정거장, 우리 근대사의 꽤 절실했던 순간들 중 하나일 것 같다. 희망과 슬픔과 이별과 눈물과 안타까움과 ...이별의 인천공항을 부산정거장 밑(次席)에 밀어 놓아보는 무례를 범해본다. 뉴욕이 꼭 부산만큼 먼(?)게 되는 날을 기다리며.

미국 가는 십이 보잉(열차)에 기대 앉은 늙은 나그네 / 시름 없이 내다보는 창밖엔 네온이 휘황 / 쓰러린 재시(再試) 살이 지나고 보니 / 그래도 잊지 못할 땀시험이여... / ... 고향에 남은 동기 잊지를 말고 / 한두 자 볼 소식을 전해주소서 / 아쉬워서 몸부림치며 떠나는 / 이별의 인천 공항

저 영감탱이 또 넋 나갈라구 하네 하는 듯 마눌님이 한때는 젊었던 서방을 걱정스레 바라보고 있다.



한국은 왜 유일한 분단국가일까요 (3)

2019 미주서울의대 Medical Convention non-CME 강의 초록

온 기 철 (71, 남가주)

대한제국의 멸망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한반도가 일본의 영토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였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만 남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이 맺어져서, 조선의 외교권은 일본 외무성이 담당하고 내정은 조선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맞게 되었습니다. 이토는 초대 조선총독으로 취임합니다. 1907년 일본은 한일합방 절차에 반항하는 고종을 폐위시키고 순종을 왕으로 만듭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이 되어 한민족은 나라 없는 민족이 됩니다. 청의 멸망은 군주제가 공화제로 바뀌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만 중국 사람들이 나라를 잃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한반도의 분단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The Great War (1914-1918)

조선과 청이 망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럽에서는 일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1914년 6월 28일, Serbia의 수도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황태자 프란츠 페디난드 대공이 서비아 민족주의자 가블릴로 프린치프에게 암살당했습니다. 이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헝가리가 서비아를 침공하자, 러시아를 포함한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연합군과 동맹국으로 나뉘어 전쟁을 벌였습니다. 연합군에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하여 나중에 일본, 미국, 중국이 합류했습니다. 동맹국에는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가 전쟁을 시작하자, 오토만제국과 이탈리아가 동맹국 편에서 싸웠습니다. 일차 세계대전은 러시아와 중국이 공산화되는 데 큰 영향을 주었고, 공산주의 국가 복원을 만들어 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러시아 2월 혁명, 제정러시아 멸망

제정러시아 마지막 황제 니콜라스의 실정으로 노동자들의 시위가 여러 해 동안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일차대전에서 러시아는 독일에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니콜라스는 반전 여론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강행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생활고에 못 견뎌 봉기하자 병사들까지 합류하여 1917년 2월 제정러시아를 무너트리고, 사회주의와 브르조아를 합친 우파 케렌스키 정부가 들어섭니다.



러시아 10월 혁명: Bolsheviks 혁명

제정 러시아를 접수한 일렉산드르 케렌스키는 반전여론을 무시하고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공산주의의 대부 레닌은 불만에 찬 국민을 선동하여 케렌스키 정부를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러시아 구력으로 10월 25일이어서 10월 혁명이라고 합니다. 양력으로는 11월 7일입니다. 당연히 러시아는 일차대전 참여를 중단하게 됩니다. 이후 러시아는 천황제 케렌스키 지지파인 백군과 볼셰비크 레닌 지지파인 적군이 싸우는 내전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게 됩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은 백군을 원조했습니다. 나라가 없는 조선 독립군은 적군의 도움을 받아서 백군을 돕는 일본군과 싸웠습니다. 러시아가 일차대전

에서 일본과 같이 연합국으로 싸웠기 때문에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 동안에는 독립군이 러시아에서 활동하기가 어려웠으나 혁명 후에 적군의 원조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1922년 12월 30일 소비에트 연방이 탄생했습니다.

민족자결주의

1918년 1월 8일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연두교서에서 "각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외부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창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유럽의 약소민족을 독립시켜서 유럽 강대국을 약화시키려는 반사이익을 노렸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특히 아시아의 약소국가들은 그의 정의로운 주장에 크게 고무되었습니다. 조선의 김규식, 베트남의 호치민이 파리 평화회의에 가서 자국의 독립을 호소한 것도 민족자결주의를 오했기 때문입니다. 윌슨 대통령보다 5년 먼저 레닌도 똑같은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일차대전 참전과 파리 평화회의

1918년 11월 11일 파리 벨사이유 궁에서 일차대전이 독일의 휴전 요청으로 종전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상 독일이 진 전쟁이어서 독일은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나친 연합국의 독일 푸대접은 일차대전의 원인이 됩니다. 유럽에 오늘날의 유럽 지도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신생국가들이 탄생하고, 중동은 영국과 프랑스가 석유 매장량에 따라 인위적으로 국경을 만들어서 오늘날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이 탄생합니다.

중국은 전쟁 중에 연합국으로 참전했습니다. 공병대 10만 명을 영국군에 합류 시켜서 유럽 전선에서 싸우게 했습니다. 동맹국인 독일이 산둥반도를 장악하고 있었고, 독일이 패전하면, 연합국 중의 하나인 중국이 산둥반도를 반환받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열강은 중국을 무시하고 산둥반도를 일본에 넘겨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인들은 서방국가에 배신감을 느끼고, 반 기독교 정서가 퍼지게 됩니다.

여운형: 신한청년당 창당

여운형은 영국과 미국 유학을 한 당시에 국제정세에 밝은 보기 드문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는 상하이에서 윌슨 대통령 특사인 찰스 크레인의 민족자결주의에 관한 강의를 듣고, 파리평화회의에 조선 대표를 파견할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영어에 능숙한 김규식을 대표로 선정했습니다. 1918년 8월 여운형은 상해임시정부의 모체인 신한청년당을 창당하고 자신이 당수로 취임했습니다. 파리평화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국가대표임을 입증하는 신임장이 필요했습니다. 마침 블라디보스토크에 대한 국민회의 임시정부가 조직되어 있어서 김규식은 이 기관의 신임장을 가지고 1919년 3월 13일에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했으나, 조선 독립 요구는 묵살되었습니다. 나라도 없고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을 만한 정부도 없는 민족대표의 요구는 허공에 대고 고함치는 격이었습니다.

1919년 3.1운동

1919년 1월 고종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타살의 의문이 짙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반일감정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한일합방 이후 일본은 무단정치로 조선인들을 탄압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분노가 쌓여 있었습니다.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로 국제적인 여

론은 약소민족에게 힘을 실어 주고 있었습니다. 여운형을 비롯한 상하이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은 연해주, 만주, 조선, 일본의 여러 단체, 독립운동가들과 연락하여 거국적인 시위를 계획했습니다. 2월에 이광수가 만든 독립선언서를 동경 유학생들이 모여 낭독했습니다. 그 후 3월 1일, 33인이 태화관에서, 시위대가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여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서울과 주로 이북의 도시에서 시작된 독립을 외치는 시위는 약 두 달간 계속되었습니다. 시위 인원은 무려 2백만에 달했고, 4만5천명이 체포되었고 7천5백명이 사망했습니다. 외신들은 일제히 탐 기사로 보도했습니다. AP 통신은 "독립선언문에는 정의와 인류애의 이름으로 2천만 동포의 목소리를 대표하고 있다."라고 대서특필했습니다. 일본은 조선총독을 갈아치우고 문화정치로 유화정책을 써서 조선 사람을 달랬습니다.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1919. 4. 13)

삼일 운동 후, 1919년 여름부터 각지의 독립지사들이 신한청년당이 있는 상하이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4월 10일에 상하이 프랑스 조계에 살고 있던 교포 1000명, 29명의 임시의정원이 모여서 의정원 의원을 선출하고, 의장에 이동녕, 국무총리에 이승만, 각부 총장을 임명하여 내각을 구성하고 4월 13일에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좌파와 우파의 갈등 시기를 겪고, 우파인 친 국민당 정부로 발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모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5.4운동 (1919년 5월 4일)

신해혁명 후 손문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위안스카이는 손문이 만든 헌법을 무시하고 군사 독재체제로 중국을 다스리던 중 일본이 산둥반도 양도를 포함한 26개 항을 요구했습니다. 다 들어주면 중국이 일본의 반 식민지화되는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위안스카이는 일본이 자기를 황제에 등극하게 해줄 것을 약속받고 이에 동의했습니다. 중국 내에 반대 여론이 들끓던 중 갑자기 사망합니다. 타살이 의심되는 갑작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1916년에 그가 사망하고 판치리우가 북경 정부를 승계하나, 중국 전역은 군벌이 여러 지방을 나누어 지배하는 군벌 시대가 도래합니다. 일본이 산둥반도 이권을 요구하고 있던 무렵에는 독일이 산둥반도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1914년에 시작된 일차대전에 연합군으로 참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중국은 산둥반도를 전후에 독일로부터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고 10만이 넘는 공병대를 영국군에 파견하여 일본과 같이 연합군으로 참전했습니다. 그러나 전후 파리강화회의에서 중국은 완전히 무시되고 일본에 산둥반도 이권이 넘어갔습니다. 위안스카이와 일본이 한 약속을 이행했다는 것이 그 근거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중국 사람들은 서양 세력에게 배신당했다고 생각하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1919년 4월 30일 이 소식이 보도되자, 5월 4일 분개한 북경대학 학생들이 텐엔만 광장에 나와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일본과 서방을 배척했습니다. 반 제국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교가 중국을 망하게 했다고 믿었고 서양 세력이 앞세우고 들어온 기독교를 배

척했습니다. 이제 중국인들은 기뻐만한 정신적인 지주를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이때 공산주의가 중국인 앞에 나타납니다.

국민당과 공산당 창당

위안스카이에게 전권을 넘겨주고 외유를 하던 손문은 5.4운동에 힘입어서 남부 군벌과 결탁하여 광저우에 호법 정부(광동 정부)를 세우고 1919년 10월 10일 국민당을 만듭니다. 중화혁명당이 그 모체입니다. 1921년 5월 손문은 광동 정부 총통으로 취임했습니다. 북경에는 판치리우의 북양정부, 광동에는 손문의 호법정부로 양분되었습니다. 1921년 7월 1일 중국 공산당이 북경대학 도서관장 리다지오와 문과과장 천두슈가 주동이 되어 창당되었습니다. 정신적인 지주를 찾아 헤매던 중국인들은 레닌의 코민테른을 앞세운 공산주의를 크게 환영했습니다. 이때 모택동은 리다자오 밑에서 일했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공산당과 국민당은 중국을 장악하기 위한 처절한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나라를 일본에 빼앗긴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은 주로 중국에서 일본에 저항했고, 자연스럽게 국민당, 아니면 공산당과 연계되어 활동하게 됩니다.

제1차 국공합작

레닌은 코민테른(국제공산당)을 조직하고 이를 통해 세계 공산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손문은 1918년에 볼셰비크 혁명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내는 등 레닌에게 접근했습니다. 중국공산당은 국민당과 대등한 자격으로 합작할 것을 원했으나, 레닌은 국민당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혁명을 일으키면 된다고 타일렀습니다. 1924년 1월에 공산당이 국민당에 입당함으로써 제1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집니다. 서방국가들은 손문을 정부 차원에서 원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중국이 강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약한 중국을 유지시켜서 자국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손문은 레닌의 원조를 받아 황파우 군관학교를 세우는 등 북벌계획을 진행했습니다. 군벌로 나누어져 있는 중국을 통일하는 작업을 북벌이라고 합니다. 국민당 정부는 남쪽인 광동에 있었고 군벌의 중심은 북양(베이징) 정부였기 때문입니다. 아깝게도 북벌 준비 중에 손문이 간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에서의 독립운동

나라를 일본에 빼앗긴 조선 사람들은 러시아와 간도에서 항일운동을 하게 됩니다. 조선 안에서는 일본의 탄압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조선 사람들은 안동 김씨와 민씨 세도정치로 19세기 말부터 조선에서 살기가 어려워지자 많은 사람들이 연해주와 북간도로 이주하기 시작했고 일본이 조선을 강점한 후에 이주가 부쩍 증가했습니다. 1917년 볼셰비크 혁명 당시에 연해주와 시베리아에 조선인 인구가 3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이르쿠츠크, 치타 등에 한인타운의 형성되었습니다. 북간도에는 약 40만이 거주했다고 합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날 즈음에 임시정부인 대한국민회의가 조직되어 있었고 북간도에는 대한국민회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임시정부: 좌파와 우파로

상해임시정부는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국민회의와 한성의 임시정부를 통합한 셈이었습니다. 조선공산당을 창당한 이동회가 대한국민회의를 대표했습니다. 이동회는 국무총리에,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이승만이 대통령에 선출되었습니다. 좌파와 우파가 대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한 번도 상하이에 오지 않았고 미국에서 모금한 독립자금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국내 모금은 일본의 탄압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 (다음면에 계속)

2019-20 회비 및 후원금 현황

이성길 회기 (2019년 7월 1일 ~ 2020년 6월 30일)

- 1949 고영철
- 1952 박종식
- 1954 이동식
- 1956 김신형 김운태 박상기 서상철
- 1957 김용진 임종식 임종원
- 1958 김부근 김운범 김석희 김순옥 김시한 김학륜 김해암 류치열 박호현 배영섭 송세엽 신상균 유영호 이만택 이상설 이종국 이종용 임영신 최병두 최창송
- 1959 강상진 강재룡 김교안 김병구 김용덕 김한섭 나길진 반응균 방덕환 방석문 서경화 신한수 이종수 임낙중 임원기 정태진 최대환 최용천 최종진 한달수 한성업
- 1960 고재경 권기홍 김영환 김완주 김인환 김택경 박명근 박형순 박춘명 이경화 이광준 이덕송 이상일 이종석 임종원 임필순 전용주 전희근 조재동 한성수
- 1961 강창욱 고의걸 광동린 김영철 김성준 김예흠 김유홍 김학철 김화섭 박장생 박준환 박호성 서취열 손기용 안창현 양명교 이재두 이재승 이준우 이회백 이한수 장성환 장태환 정두현 정철용 조은순 진창건 차철준 최공창 최성덕 최태순 한수용 한혜원 황현상
- 1962 고희호 권익현 김석식 김한종 남성희 민경환 박종건 박찬형 승홍일 오태요 이기범 이상복 이석우 이용길 이태봉 장항순 정정수 조명호
- 1963 고영희 권영재 권영조 김갑중 김계윤 김승태 김정일 김주용 김태웅 김태형 김현화 노인규 마동일 박세록 박승균 서경석 선종철 송용덕 신경호 신영규 왕규현 윤영섭 윤영옥 윤진수 이재명 이종두 이병준 이수인 이승현 장세곤 정관호 조열하 조한원 진병학 추재욱 하상태 한기현
- 1964 강창만 권정덕 김용두 김태환 박세준 라찬국 송원길 신두식 안연승 양운택 오수환 오유섭 유광현 유창남 윤흥기 이광신 이용만 이정필 이재풍 이정은 이종성 이주영 이종오 이흥표 임병훈 정유석 조동준 조성준 차응만 최준희 한태진 허선행 홍선경 홍준표 선우세현
- 1965 구경회 김덕진 김육현 박수안 신백효 이광선 이범석 이재진 이정의 이한승 이한중 이화성 임현재 전영균 정길화 조성구 지영환 채도경 최무원 최영인 한재은 황규정 홍수용
- 1966 김의신 김우신 김진수 김진호 김충규 민발식 이명희 이성근 이영일 장한교 정량수 조관상 조규용 조의열 한동수 한일성 황 철 허서룡 최순채 최영자
- 1967 강명식 김동수 김성철 김태웅 문경용 우준균 유진일 이근용 이민우 이소희 이영균 이정화 이준식 이진수 이태안 최무용 최승용 한영수
- 1968 김경인 김명원 김영남 김영덕 김재관 김주평 김진홍 김희주 노영일 문광재 박정식 서영일 서운석 송창호 신용계 안극환 안세현 유우영 이건일 이규달 이상훈 정재성 차재철 최 철 홍광신 황훈규
- 1969 김병오 김운태 김중권 김창남 박수용 서 량 송용재 안병일 엄규동 오선용 윤효운 이용환 이충호 임응규 정한규 최승용 최종일 최종진
- 1970 김형달 박찬진 박홍식 문성길 송요준 오석일 이성춘 장극기 조남현 조영갑 최원일
- 1971 강유구 강창홍 강태수 김성환 김유식 김일영 김재홍 김효순 김 훈 김창구 박동수 박상호 배성호 서상현 서정자 오동환 오상현 온기철 이원택 이종일 이성길 장문석 장 철 정인용 조세진 최영철 하준영 홍성진 황동하
- 1972 김광호 김재석 김현배 박찬호 석창호 오용호 이기진 이신재 장해숙 정진우 조경호 황용규
- 1973 김정용 김천일 나두섭 문대욱 민인기 박진섭 방병기 서인석 송정자 심완섭 오인환 위장호 이계석 임준형
- 1974 권철수 구재훈 김용진 유영준 임자은
- 1975 김자역 김원정 박인영 배영훈 전경배 조철영
- 1976 김정아 한승신 유영걸
- 1977 김동훈 박정식 박일우
- 1980 박남훈
- 1981 이선희
- 1982 차민영
- 1983 전원일
- 1984 서귀숙 정희국
- 1985 박정미 임경옥
- 1988 신원석
- 1989 이선규
- 1991 강민중
- 1998 강현선
- 1999 김정훈 박종철 이도은
- 2000 박은경
- 2001 김민정 김태곤 장세권
- 2002 최태웅
- 2008 박종환 이익재
- 2009 양현식
- 2012 최예원

— 은 2회 이상 납부하신 분

37th CONVENTION DONATION

- 강수상(53)1,000 임종식(57) 500 김운범(58) 100 신상균(58) 500 최창송(58)1,000
- 이종석(60) 100 강창욱(61) 200 한수용(61) 100 한혜원(61) 100 남성희(62) 100
- 정정수(62) 300 김태형(63) 75 이재풍(64) 100 이흥표(64) 150 전희택(64) 300
- 허선행(64) 100 김진수(66) 50 장한교(66) 75 김영남(68)1,000 강창홍(71) 100
- 김성환(71)1,000 김일영(71) 500 김창구(71) 100 배성호(71) 300 이성길(71)1,000
- 온기철(71)1,000 이기진(72) 200 김천일(73) 100 나두섭(73) 200 문대욱(73) 300
- 박진섭(73) 500 서인석(73) 500 유영준(74) 150 배영훈(75) 50 조철영(75) 100
- 김정아(76) 500 한승신(76) 500 이선규(89) 100 이도은(99) 50
- 남가주지부1,000 서울메타칼그룹 3,000 <2021년 학술대회로 이전 됩니다.>

GENERAL DONATION

- 한용현(48) 120 강수상(53) 500 노용면(55) 200 김신형(56) 400 서상철(56) 150
- 임종식(57) 125 임종원(57) 75 김석희(58) 200 김운범(58) 120 신상균(58) 500
- 이상설(58) 150 강상진(59) 100 김교안(59) 50 오형원(59) 100 최종진(59) 200
- 한성업(59) 100 권기홍(60)1,000 박명근(60) 50 이경화(60) 75 임종원(60) 50
- 한성수(60) 75 강창욱(61) 250 이회백(61)1,000 진창건(61) 100 황현상(61) 75
- 고흥호(62) 250 민경환(62) 75 박찬형(62) 250 오태요(62) 250 이영웅(62) 250
- 권영조(63) 500 김계윤(63) 75 김현화(63) 150 송용덕(63) 200 신경호(63) 75
- 이재명(63) 50 진병학(63) 100 권정덕(64) 100 김태환(64) 200 라찬국(64) 100
- 양운택(64) 100 오유섭(64) 75 이재풍(64) 100 임병훈(64) 100 정유석(64) 500
- 조동준(64) 250 최준희(64) 175 박수안(65) 100 이재진(65) 200 이한중(65) 250
- 정길화(65) 100 지영환(65) 75 정량수(66) 300 최순채(66) 250 허서룡(66) 500
- 강명식(67) 175 김성철(67) 75 문경용(67) 100 이진수(67) 50 최무용(67) 250
- 김명원(68)1,000 김진홍(68) 250 김희주(68) 100 노영일(68) 300 서운석(68) 600
- 안세현(68) 500 이건일(68) 300 이상훈(68) 175 차재철(68) 75 김병오(69) 250
- 김중권(69) 200 김창남(69) 250 서 량(69) 375 정한규(69) 50 김형달(70) 150
- 문성길(70) 350 박찬진(70) 100 방준재(70) 500 오석일(70) 300 조남현(70) 100
- 김성환(71) 500 박동수(71) 175 배성호(71) 75 온기철(71) 500 이원택(71) 375
- 오동환(71) 225 장철철(71) 75 정균희(72) 500 오용호(72) 300 나두섭(73) 500
- 민인기(73) 50 박인영(75) 50 조철영(75) 100 김동훈(77) 100 차민영(82) 500
- 박정미(85) 100 신원석(88) 125 *Mrs. 송영두(62) 200

CHARITY FUND

- 이상설(58) 100 강상진(59) 100 이기범(62) 75 조한원(63) 75 신두식(64) 100
- 허선행(64) 100 홍선경(64) 100 채도경(65) 100 최영인(65) 75 최영자(66) 200
- 김유식(71) 75 김창구(71) 75 하준영(71) 75 김천일(73) 100 민인기(73) 100
- 김웅진(74) 100 김정아(76) 75 한승신(76) 75

SCHOLARSHIP FUND

- 김학륜(58) 100 신상균(58) 200 정태진(59) 75 임필순(60) 200 황현상(61) 200
- 고흥호(62) 200 김한종(62)1,000 이기범(62) 300 조명호(62) 200 김태웅(63)10,000
- 한기현(63) 225 이재풍(64) 100 이흥표(64) 125 허선행(64) 100 김진호(66) 100
- 이영균(67) 100 김주평(68) 75 박수용(69) 200 조남현(70) 100 김효순(71) 125
- 배성호(71) 100 서정자(71) 375 이성길(71) 500 박찬호(72) 200 조경호(72) 75
- 김웅진(74) 100 김자역(75) 500

*Mrs. 한용현(48) 3,000 *정병욱 FUND 10,000 *이유찬(64) 장학금 5,000

GREEN PROJECT FUND

- 최창송(58) 500 이종석(60) 75 전용주(60) 75 이용길(62) 200 안연승(64) 250
- 이흥표(64) 100 허선행(64) 100 이광선(65) 75 박수용(69) 200 이성길(71) 500
- 오용호(72) 100 서인석(73) 100 김정아(76) 500 한승신(76) 500 박남훈(80) 125
- 이선희(81) 100 전원일(84) 125 서귀숙(84) 100 이선규(89) 100 강민중(91) 100
- 박종철(99) 100 이도은(99) 100 박은경(00) 100 장세권(01)1,000 최태웅(02) 100

AASCDFT DON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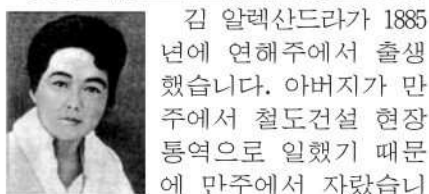
민발식(66) 100

시계탑 문집 (6집) 기금

- 강수상(53) 500 김시한(58) 250 김해암(58) 200 김병석(59) 300 오형원(59) 100
- 임낙중(59) 400 박형순(60) 250 이덕송(60) 500 전희근(60) 250 강창욱(61) 250
- 안창현(61) 250 이재승(61) 250 이회백(61) 500 정두현(61) 300 고희호(62) 250
- 박찬형(62) 250 오태요(62) 250 이영웅(62) 250 김태형(63) 300 김택수(63) 250
- 이수인(63) 250 이흥빈(63) 250 정관호(63) 250 추재욱(63) 250 정유석(64) 500
- 조동준(63) 250 허선행(64) 300 이한중(65) 250 김용재(66) 300 정량수(66) 300
- 최순채(66) 250 허서룡(66) 500 최무용(67) 250 노영일(68) 300 김명원(68)1,000
- 김진홍(68) 250 서운석(68) 600 안세현(68) 500 이건일(68) 300 김병오(69) 250
- 김창남(69) 250 문성길(70) 350 방준재(70) 500 김성환(71) 500 온기철(71) 500
- 이원택(71) 300 정균희(72) 500 나두섭(73) 500 박인영(75) 250

<전면에서 계속> 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금원은 소련의 레닌이었습니다.

김 알렉산드라: 이동휘 생명의 은인



김 알렉산드라가 1885년에 연해주에서 출생했습니다. 아버지가 만주에서 철도건설 현장 통역으로 일했기 때문에 만주에서 자랐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는 조선어, 중국어, 러시아어 3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 10세 때 아버지를 잃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아버지 친구인 스타케비치 밑에서 성장하여 교사가 됩니다. 스타케비치 아들과 결혼하나 곧 이혼하고 20세에 우랄산맥 벌목장 노동자 통역으로 일하기 위해서 서쪽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통역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성심성의껏 도와주었습니다. 일차대전 동안 일본이 러시아와 같이 연합군으로 참전했기 때문에 상당수의 조선인 노

동자들이 이곳에 끌려와서 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노동자들의 밀린 임금을 러시아 정부로부터 받아내어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레닌도 그를 높이 평가하고 공산당 간부로 등용하여 1917년 볼셰비크 당원, 1918년에 당 서기, 극동평의회 의무위원이 됩니다. 1917년, 러시아 내란 중 이동휘는 적군에 가담하여 백군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동휘가 백군 헌병에게 체포되어 죽을 위협에 처해 있을 때 김알렉산드라가 영향력을 발휘해서 구해 줍니다. 그 인연으로 1918년 4월 28일에 이동휘와 같이 조선사회(공산)당을 창당했습니다.

이동휘 레닌과 만나다

이동휘는 22세에 육군 참령, 강화도 진위대장을 지냈습니다. 을사보호조약 후 관직을 사퇴하고 독립운동에 투신합니다. 1911년 평양 105인 사건에 관련되어 유배되었으나 유배지를 탈출하여 간도로 이주했습니다. 이듬해에

연해주로 옮깁니다. 일차대전에 일본이 참전하면서 러시아와 일본이 한편이 되자 러시아에서 항일운동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잠시 중국으로 왔다가 볼셰비크 혁명 후에 백군과 적군이 대립하는 러시아 내란 중에 러시아로 돌아옵니다. 왜냐면 일본과 미국 등이 백군을 지원했고 일본과 적대관계에 있는 조선독립군을 적군이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1918년에 조선공산당(한인사회당)을 창당한지 일년 후에 상해임시정부 국무총리에 취임했습니다. 김알렉산드라의 주선으로, 1920년 7월 19일 코민테른 민중대회에 이동휘, 김립 등 조선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이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1921년 레닌은 한인 독립운동가들과 만찬을 할 정도로 한인사회주의자들에게 크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상해임시정부의 위기

레닌은 코민테른을 통해서 고려공산당에게 200만 루블 원조를 약속했

습니다. 한꺼번에 다 가져오기가 힘들어서 우선 40만 루블을 수령하기로 하고 임시정부는 김립에게 그 임무를 맡깁니다. 그는 수령 도중에 그 돈을 한인 사회당(공산당)으로 넘깁니다. 이로 인해서 이동휘는 국무총리직에서 사임했습니다. 우파 지도자였던 김구는 암살범을 보내어 김립을 사살했습니다. 임정 내의 좌파와 우파의 갈등은 임정의 존폐를 위협했습니다. 임정 내의 좌파도 여러 분파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르쿠츠펠은 여운형이, 상하이파는 이동휘가, ML파는 김준연이 보스였습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은 20여개가 넘는 분파로 갈라져 있었고 레닌은 조선사람들이 아직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모든 원조를 중단했습니다. 이제 임정은 국민당 밖에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당은 조선인들이 완전한 자기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